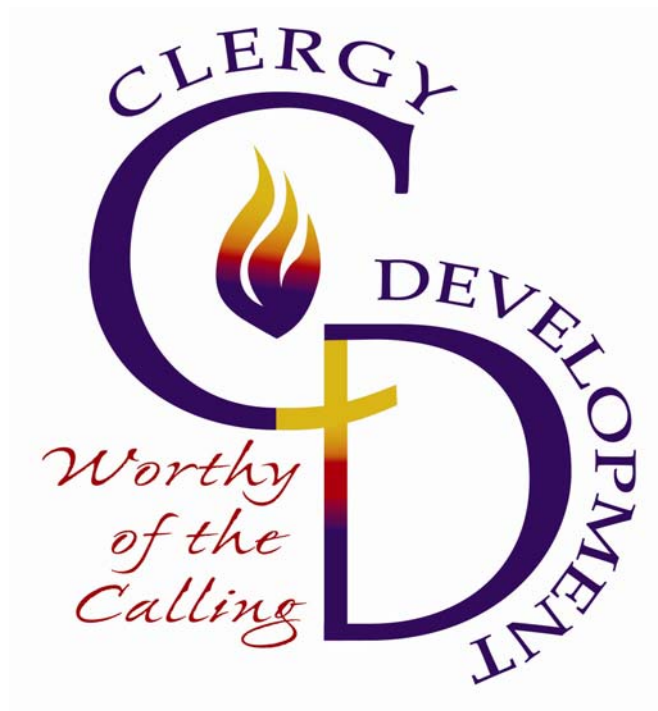

교사용

성결한 사람이 되자



성직자 개발부

나사렛 교회

캔사스시, 미조리주

816-333-7000 교환 2468; 800-306-7651 (USA)

2004

Copyright ©2004 Nazarene Publishing House, Kansas City, MO USA. Created by Church of the Nazarene Clergy Development, Kansas City, MO USA. All rights reserv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1973, 1978, 1984 by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NASB: From the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copyright the Lockman Foundation 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7, 1995. Used by permission.

NRSV: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Notice to educational providers:

This is a contract. By using these materials you accept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covers all Faculty Guides, Student Guides, and instructional resources included in this Module.

Upon your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Clergy Development grants to you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se curricular materials provided that you agree to the following:

1. Use of the Modules.
 - You may distribute this Module in electronic form to students or other educational providers.
 - You may make and distribute electronic or paper copies to students for the purpose of instruction, as long as each copy contains this Agreement and the same copyright and other proprietary notices pertaining to the Module. If you download the Module from the Internet or similar online source, you must include the Clergy Development copyright notice for the Module with any online distribution and on any media you distribute that includes the Module.
 - You may translate, adapt, and/or modify the examples and instructional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instruction culturally relevant to your students. However, you must agree that you will not sell these modified materials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from Clergy Development.
2. Copyright. The Module is owned by Clergy Development and is protected by United States Copyright Law and International Treaty provisions. Except as stated above, this Agreement does not grant you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odule.
3. Restrictions.
 - You may not sell copies of this Module in any form except to recover the minimum reproduction cost of electronic media or photocopy expense.
 - You may not modify the wording or original intent of the Module for commercial use.
4. Unpublished rights reserved under the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Clergy Development
Church of the Nazarene
6401 The Paseo
Kansas City, MO 64131
USA

The **Modular Course of Study** is an outcome-based curriculum designed to implement the educational paradigm defined by the Breckenridge Consultations. Clergy Development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nd distributing the Modular Course of Study for the Church of the Nazarene.

Members of the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Modular Course of Study were

Michael W. Vail, Ph.D., Series Curriculum Editor
Charles E. Zink, Director, Clergy Development
Jerry D. Lambert, Commissioner, International Board of Education
Al Truesdale, Ph.D.,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retired)
Robert L. Woodruff, Ph.D., World Mission Educational Coordinator
David Busic, Pastor, Central Church of the Nazarene, Lenexa, KS
Ron Blake, Pastor, Detroit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Michael W. Stipp, Clergy Development

Series Foreword written by Al Truesdale

Journaling Essay written by Rick Ryding

Principal contributors for each module are listed in specific Faculty Guides.

씨리리즈 서언

기독교 사역의 비전: 나사렛 교회의 성직자 교육

모든 인간- 정말로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로 그 자신을 알려지게 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한 무리로 존재케 하셨는데, 곧 그의 이름과 그의 방법들을 구현시키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교회이다. 그의 백성들 및 세상과 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 그의 교회의 머리로 살아 통치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에 의해 들려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해 살아있다. 교회는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곧 지금도 설교와 성찬식, 간증의 말, 공동체 생활들 그리고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교회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은 증인과 섬김의 사역을 시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 그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복음전파의 양상으로 이행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이 부름에 있어 시작하는 행동자이시지 인간들이 아니다. 나사렛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안수 사역자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이 놀라운 사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겸손해야 한다. 나사렛 교회의 장정은 진술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다 직무적이고 공적인 사역을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수한다” 고 한다. 그것은 첨가하여 “교회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주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나사렛 교회 장정 400 항목)

기독교 안수 교역자는 그[녀]의 최고 책임으로 나사렛 예수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온전한 이야기를 여러 방법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벘전 5:2-3). 교역자는 목자장인 그리스도의 감독하에 이 임무를 이행한다 (벘전 5:4). 그러한 사역은 얼마동안의 주의

깊은 준비기간 후에만 성취될 수 있다. 교역자에게 항상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은 “준비”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독특한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가 된다 (딤후 1:7).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돌보도록 맡겨진 자이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청지기들이다. 그러나 그 외의 특유한 의미로 기독교 교역자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와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청지기이다. 교역자는 온전한 충성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엡 6:19). 바울과 같이 그[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성되이 전파해야 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함으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한다 (엡 3:8-10).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부지런함과 경각에 대해서는 많은 여지가 있지만 게으름이나 특권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 (딤후 1:5-9). 선한 청지기는 그들이 오직 청지기들이지 소유주들이 아니라는 것과 주인에 대한 그들의 청지기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인정한다. 사람의 임무와 그것을 맡긴 주께 충성하는 것은 청지기의 주된 열정이다. 적절히 이해될 때 기독교 사역은 결코 “직업”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역, 곧 유일한 기독교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청지기가 되는 것 보다 더 훌륭한 책임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소명을 안수 사역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 중세기의 개혁자들, 신교 개역자들, 그리고 오늘날들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들로서 기쁘게 섬기는 세계 전역의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설 것이다.

분명히 교역자의 청지기직이 얼마나 완전하고 포괄적인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만 거절하는 자는 안수를 지향하는 길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특유한 의미로 기독교 사역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해야” 한다. 대신 교역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야” 한다. 그[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고 한다 (딤후 6:11-12).

그러므로 나사렛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시간
 영수, 사려 분별, 근면, 열성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인도하는 양 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즉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고후 6:6-7) 자라야 함”을
 믿는다 (나사렛교회 장정 401.1 항목).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 1:7-9).

하나님의 이야기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사역자는
 다른 일들 중 안수 전후에 주의 깊고 조직적인 연구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녀]가 부득불 해야 하기
 때문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가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와 불가피한
 책임감에서 부터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사역준비를 위한
 자세가 그[녀]가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강조라 할 수 없다. 예수안에 성육신 하시고
 만민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다
 (마 21:33-44; 25:14-30; 막 13:34-37; 눅 4 12:35-
 40; 19:11-27; 20:9-18).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을 위한 준비-그것의 모든 차원을
 위한 사람의 교육-는 사역이 포함하는 책임에 완전히
 비추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앞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의 재량에 따라 가장 좋은 교육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나사렛교회는 안수받은 기독교인의 사역과 연관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 들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방법은 안수와 사역 실행을 위해 내세운 요구 사항들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방법은 안수와 사역 실행을 위해 내세운
 요구사항들에 나타나 있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에 대한

소명과 실행은 은사이지 권리나 특권이 아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최고 높은 종교, 도덕, 인격, 그리고 전문 직업 표준에 두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러한 표준들이 소명 받은 때부터 그[녀]의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 함을 적극 기대한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이 먼저 예배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은혜의 기적에 의해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수단일 수 있다 (롬 12:1-3). 사역을 위한 교육도 또한 예배 형태이다.

안수 후보자로 인도하는 연구 과정을 구성하는 마줄들은 우리가 기술한 종류의 사역을 위해 준비 시키기 위해 신중히 디자인 되었다. 그것들의 공통된 목적은 안수받은 기독교인 사역에 들어 가는데 온전한 준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지혜와 체험과 책임을 반영해 준다. 그 마줄들은 나사렛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신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그리고 기독교 사역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보여 준다. 마줄들을 끝마치는데는 주로 3년 혹은 4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아무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줄들이 요구하는 주의 깊은 연구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 앞에서 안수 받은 사역과 연관된 책임을 청지기 정신으로 받아 들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용

시리즈 서언 ----- iii
 서론 -----viii

단원 1: 예비 문제들 ----- 1-1
 단원 2: 신학 기초들 ----- 2-1
 단원 3: 구약 성경 기초들 ----- 3-1
 단원 4: 신약 성경 기초들 ----- 4-1
 단원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 5-1
 단원 6: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 6-1
 단원 7: 전통: 성결 운동 ----- 7-1
 단원 8: 합리론: 완전 성결의 본질 ----- 8-1
 단원 9: 체험: 완전 성결의 구조 ----- 9-1
 단원 10: 체험: 목적에 이르는 수단 ----- 10-1
 단원 11: 체험: 성결 윤리 -----11-1
 단원 12: 21 세기를 위한 성결 -----12-1

자료들 -----(학생용 교재에 포함됨)

서론

이 교수용 교재 사용의 의도

이 교수용 교재는 나사렛 교회에서 안수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성결인이 되는 것의 원칙들을 가르치는데 교사의 지침으로 활약한다. 내용은 1990 년에서 1997 년 사이에 미국 콜로라도 주 브레큰리지에서 실시된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 정립된 교사를 준비시켜 배경 독서, 수업 계획, 강의, 교사를 위한 지시, 그리고 각 수업시간을 위한 교수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주제를 발표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수업을 위해서 완전 강의, 지도하에 갖는 토론, 그리고 규정된 학습 활동들이 제공되어 있다.

이 마줄을 인도할 목회자 -교사-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목회자-교사-는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 자료를 사용하는 마줄에 학생으로 참석하여 배웠어야 한다. 이 교수용 교재는 목회자-교사-가 “요한 웨슬레 신학 탐구” 및 나사렛 성결교리에 제시된 웨슬레 신학에 대해 약간의 기초 지식이 있음을 예상한 것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고 전통적 대학 연령을 넘어선 장년 학생들임을 예상하였다. 학생들은 배우는 동기가 분명하고 장년 삶의 체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전에 아무런 대학 수강 체험이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이 마줄에 등록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 신학 탐구”의 마줄을 끝마칠 것을 천거한다.

감사

모든 마줄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집성된 것이다. 어떤 분은 원고를 쓰고 다른 분들은 내용을 보강하고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의견들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편집인들은 마줄을 출판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이 마줄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이 마줄에 기여하였다. 주요 기여자들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주요 기여자

이 마줄을 위한 주요 기여자는 다이엔 레클러 박사이다. 레클러 박사는 노쓰웨스트 나사렛대학의 역사 신학과 설교학 교수인데, 그녀는 그곳에서 1998년부터 가르쳐 왔다. 그녀는 나사렛 교회의 안수목사이고 메인과 아이다의 두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녀는 이스턴 나사렛대학에서 종교학 학사학위, 나사렛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 그리고 드류대학에서 철학 석사 및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웨슬레 신학잡지에 기사들을 출판했고 “감리교 전통 및 관련 운동의 핵심 종교”를 포함하여 두 서적에 기고하였다. 그녀의 장편 서적인 “단일한 마음: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결, 죄 그리고 성결”은 2002년에 웨슬레 신학회의 연차 서적 우수상을 받았다. 레클러는 웨슬레 신학회와 웨슬레 성결 여자 성직자협회의 활동적 회원이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이다호 주 남파에 거주하고 있다.

반응인

각 마줄은 내용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좁은 견해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 적어도 한 분의 내용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다. 반응인은 주요 기여자가 이 마줄에 합칠 수 있는 의견들을 제공하였다.

존 에이 나이트 박사는 이 마줄의 반응자였다. 나이트 박사는 나사렛교회의 은퇴 중앙감독이다. 1985년에 그의 교단의 최고 직위를 맡기 전에 그는 베다니 나사렛 일반 대학 (지금은 서던 나사렛 종합대학) 과 마운트 버논 나사렛 일반 대학 (지금은 종합대학)의 학장 및

“성결의 소리” (지금은 “오늘의 성결”) 편집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 및 교수로 탁월하게 활약하였다. 그는 교회를 위해 몇권의 책들과 많은 기사들을 썼다.

개정 역사

2005 년 2 사분기, 개정판 2, 현판,

- 성별 포괄성을 원본 편집

2004 년 2 사분기, 개정판 1,

- 교재 개관, 서론, 본문, 결론 형태 정립

이 마줄에 대하여

나사렛교회는 그 자체를 “성결”교단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두 현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는 19 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 운동”으로 알려진 전통으로 부터 자라 나왔다. 우리는 친히 같은 전통에서 태어난 교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결은 우리의 역사적 정체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성결”의 역사적 배경은 또한 결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한데 묶는 “성결” 신학을 필히 암시한다. 그 운동의 교단들과 다른 협회들은 모두가 “성결 교리”에 대한 특별이해를 주장해 왔는데- 그리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또한 “성결 신학”으로 판명될 수 있다. “성결”이란 바로 그 말은 이 두 현실 곧 “성결 운동”과 “성결 교리”를 줄인 말이 되었다.

이 성결교리의 뿌리는 특별히 동부의 초대 교회 저자들 곧 헬라에서 쓴 그 교부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교리의 측면들은 중세기, 종교 개혁, 영국 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발전된 성결교리를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다; 그의 역사적 배치 뿐만 아니고 그의 신학적 비전은 감리교단을 형성하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1784 년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레 신학이 19 세기의 문화, 종교적, 역사적 문맥에 맞추었을 때, 신학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났다.

과거 몇 십년 동안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여기 우리의 탐구의 바로 시작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19 세기의 변화를 웨슬레의 거대한 향상으로서 찬양되고 굳게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 설교가들이 있어 왔다.

정 반대편에는 그 변화를 신학적 재난으로 보고 18 세기 웨슬레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또 가끔 논쟁 자체의 절대 중요한 문제들과 해석 그리고 궁극적 독특성들을 혼돈하고서 의심할 여지없이 중간 어느곳에 서 있는 다른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논쟁의 측면들은 그것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름들과 연관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들에 있어 논쟁은 열렬히 행해졌다. 맨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사렛교회의 뿌리가 둘 다의 원천 곧 웨슬레안과 성결에서 부터 자라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슬레안-성결 교단이다. 이 두 원천들에 적절한 주의를 기하는 것이 이 저자의 시도일 것이다. 두 원천들로 부터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외에 오늘 날 교단을 위해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의제가 있는데 곧 21 세기를 위해 성결 신학을 어떻게 가장 잘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다. “웨슬레로 돌아 가자”는 외침과 “성결 부흥으로 돌아 가자”는 외침을 둘 다 미래를 향해 방향을 고쳐야 한다.

오늘을 배경으로 성결신학의 또 다른 절대 중요한 면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 다음에 오는 레슨들에 나오고 숙고되어질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성결신학, 특별히 완전 성결교리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그 강조점을 잃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명확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너무 혼동하므로 그 건설적이고 명백하며 건실하고, 현실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교리의 확언을 점점 더 찾아 보기 어렵다. 만일 이 교리가 우리 교단의 명백한 “독특성”이라면, 그것이 너무 강력하여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어찌면 조금이라도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다시 주장하고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은 우리의 성직자의 준비와 교육을 통해서이다. 저자는 위에 규명된 대로 그녀가 현재의 “위기”로 믿는 것에 비추어 이 과제에 친히 헌신하였다. 이 구체적인 마들이 지금 성결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중대한 준비과정의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바라마지 않는다.

이 마들의 조직은 기초가 되는 후원 곧 웨슬레의 4 변형의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위를 고수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웨슬레는 성경이 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경은 전통 곧 어떤 신뢰성을 요구하는 해석의 역사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체험과 성격상 동력적이고 상호적인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이성의

도움을 통해 이해되고 정정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들의 레슨들은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의 관점에서 성결신학을 고찰할 것이다. 그것은 “성결 윤리”의 영역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관련해서 성결신학과 완전성결교리의 정립을 위한 몇가지 추천안을 내놓을 것이다. 나사렛교회에서 안수받고 사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웨슬레-성결신학의 관점, 특별히 그것의 성결교리를 표명함에 있어서 그 ..를 포착, 고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들은 우리 교단의 미래의 정체를 확고히 염두에 두고 디자인 되었다.

마들 자료들

우리는 이 마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출수 있도록 하는데 융통성있고 용이하도록 제작하려고 애써 왔다. 각 레슨을 위해 몇가지 밑받침이 되는 작품들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자료들”이라 불러 왔다. 이것들은 많은 다른 방법들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들은 이 마들의 학생용 교재 안에 다시나와 있다. 교사는 그[녀]가 사용할 수 있게 학생용 교재의 한 사본을 원할 것이다.

1. 교사는 이것들을 복사하여 그[녀] 자신의 강의 개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교수용 교재와 교과서, 혹은 제안된 보충 독서로 부터 노트를 첨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당신 자신의 예증도 또한 첨가하기 바란다!
2. 페이지들은 프로젝터용 투명 용지에 복사하여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이 페이지들은 학생용 교재에 실려 학생들이 사용 및 참여하게 했다.

이 마들을 제작한 한 가지 이유는 연장교육의 혜택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세계 전역의 교사들이 과목들을 가르치도록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계발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것을 연장 교육가들의 재료로 제공하고 싶다. 만일 그것이 줄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일이다.

이 마들을 제작한 또 다른 이유는 토착민의 교수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같은 클래스는 학생들의 문화권내에서 나온 어떤 분에 의해 가장 잘 가르쳐 질 수

있고 전후 배경을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 전역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마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는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로 마들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칠 것을 주장할 때 보다 더 그들의 배경을 위해 그것을 더 동적이고 의미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줄이 의도한 결과

나사렛교회 장정 및 *안수 개발 국제 표준자료집*은 안수를 위한 교육 준비에 대해 정의한다. 추가로 나사렛 국제교회의 각 지구는 그들의 지구 내에서 제공된 안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 개요를 개발하였다.

미국 지구 교역자 개발자료집은 전반적인 교역자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들에 대해 정의한다. 그 마들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프로그램의 다른 마들들도 역시 같은 결과들을 다룰 것이다. 이 마줄들과 관련된 구체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결과들

- CN 22 웨슬레 신학의 독특한 특징들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능력
- CN 23 웨슬레 신학의 독특한 특징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CN 27 미국 성결운동과 나사렛교회를 형성하는 영향을 알아 낼 수 있는 능력
- CP 10 분별,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분석,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애매모호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CP 11 논쟁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전제들과 결과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 CP 21 전후 문맥이 흐르고 신학에 근거한 예배를 계획하고 명령하고, 참여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결과 성명서들

- 교리를 이해하고 판명하는데 유해가 되어 올뿐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체험 못하게 하는 성결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인정한다.

- 성결을 웨슬레 신학 전체, 곧 구체적으로 폭 넓게 정의된 신학적 인류학, 죄론 그리고 구원론과 관련시킨다.
- 성결교리를 위한 구약성경의 기초들을 알아내고 판명한다.
- 웨슬레 성결의 선구자들과 운동에 대해 친숙해진다.
-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학을 이해한다.
- 성결에 대한 웨슬레와 19 세기의 판명을 비교 및 대조한다.
- 전통적 및 혁신적 언어로 성결 신학과 완전 성결교리를 판명한다.
- 성결과정과 위기를 구별한다.
- 성결 여정의 중대한 이정표를 알아 낸다.
- 성결이 웨슬레의 “은혜의 수단”의 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 “성결윤리”의 기초들을 판명한다.
- 성결신학의 본질-그것이 무엇인가-및 상황/구조-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판명한다.
- 학생들에게 성결에 관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성결체험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추천하는 교과서들

마쭈 연구과정의 각 마쭈는 독자적 교과서가 되도록 의도했다. 이것은 마쭈들이 서로 관계성이 없거나 마쭈 내용이 이 교수용 교재에 제공된 레슨들과 함께 학생들이 교과서를 공부할 것을 선정 및 요구함으로 풍부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마쭈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 국가들 밖에서 사용되도록 조절된다면 학생들의 언어로 된 구체적인 교과서가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쭈는 한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사는 어떤 것이나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마쭈에의 추천 독서

과제물들-레슨 5 와 6-중 하나는 포베 파머가 쓴 *성결의 길을 읽는 것이다*. 레슨 5 전에 학생들로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본들은 대부분의 도서관들-공립학교, 대학, 연회, 그리고 교회-들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도서를 위해 사본을 구입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책들은 아마존 및 웨슬레 서적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한 제목으로 씨디에 들어 있는데 웨슬레 썬터 온라인 (<http://wesley.nnu.edu>)를 통해 2000 부 이상의 그런 교재들과 함께 구입할 수 있다.

포멜라 파머가 쓴 *성결의 길*도 역시 온라인 <http://wesley.nnu.edu/wesleyctr/books;indices/index-p-authors.htm>. 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편집자는 두에인 멕시 목사의 면밀 조사하여 편집된 문서를 만들어 내고 웨슬레 썬터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싶다.

또 다른 과제-레슨 4 와 5-는 요한 웨슬레의 단편인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사건”을 읽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웨슬레 썬터 웹사이트(<http://wesley.nnu.edu>)를 통해서와 웨슬레 썬터 CD 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문서의 전자식 파일은 마줄 연구과정 CD 에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학생들에게 사본들을 전자식으로나 문서들을 복사하여 배부할 수 있다. 판권 허용에 대한 주의를 분명하게 해 둔다.

제안된 마줄 강의 시간표

마줄 강의는 각 90 분 계속되도록 제작되었다. 각 레슨은 서론, 본론, 결론 그 자체로 완성된다. 그것들은 연속적이다. 각 레슨은 학생들이 그 이전에 제공된 자료를 숙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스케줄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그룹 지어질 수 있다.

레슨들이 같은 모임에서 가르쳐질 때 교사들은 참여자들이 레슨들 사이에 항상 앞을 내다 보고 다음에 오는 레슨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대하다.

조직성있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많은 제안들 중에서 여기 세가지를 내 놓는다.

1. 캠퍼스 기숙생들. 클래스는 90 분을 위해 일주일에 2 일 모임 수 있다. 각 모임시간에 한 레슨을 가르친다. 총 기간: 6 주
2. 연장 교육. 클래스는 3 시간에서 3 시간반을 위해

매주 하루 낮 혹은 저녁에 모일 수 있다. 매 모임에 두 레슨을 가르치되 강의 사이에 휴식시간을 갖는다. 참여자들은 모임들을 위해 한 중심 지역에 여행함으로써 그들의 시간을 값있게 한다. 총 기간: 6 주.

3. 집중 마줄. 클래스는 하루 7 시간에서 8 시간을 위해 3 일 연속 모일 수 있다. 강의 사이에 휴식시간을 갖고 오전에 두 레슨을 가르친다. 참여자들은 마줄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독서과제를 끝마쳐야 하고 서면 과제물들은 강의 모임 이후 30-60 일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총 모임기간: 3 일 (독서 및 서면 과제물을 포함한 경과시간: 2-3 개월)

마줄은 12 레슨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 레슨들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언제 당신의 클래스가 모이는지 당신이 날짜 란에 기입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었다.

날짜	단원
	1. 예비 문제
	2. 신학 문제
	3. 구약 성경 기초들
	4. 신약성경 기초들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6.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7. 전통: 성결 운동
	8. 합리론: 완전 성결의 본질
	9. 체험: 완전 성결의 구조
	10. 체험: 목적에 이르는 수단
	11. 체험: 성결 윤리
	12. 제 21 세기를 위한 성결

이 교사용 교재에 대하여

주목;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기억한다는 것은 삼히 중대하다. 그것은 당신이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마줄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마줄의 초점은 학생들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학생들이 배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때는 강의식으로 할 것이다. 다른 때는 당신은 토론을 인도하거나 당신의 학생들로 그룹지어서 과제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활동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한다. 학습은 팀의 활동이다.

교사용 교재는 교사가 이 마줄을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 그[녀]를 인도하기 위해 씌어 졌다. 그것은 완전한 레슨 계획들과 자료들을 품고 있어 주제에 대한 견실한 교육 디자인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당신은 모임 시간 전에 각 레슨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끔 교사를 위해 뒷받침 할 수 있는 독서 제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레슨에 끼워 넣기를 원하는 보충 참조 자료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대답하거나 토론 하도록 의도된 질문들은 이탈릭체 형태로 되어 있다.

교사용 교재를 위해 두 난의 형태 선정.

오른쪽 난은 강의 내용, 활동 사항, 학생들을 계속 참여토록 하는 질문들로 되어 있다. 왼쪽 난은 교사 당신에게 제안된 지시사항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강의의 개념을 예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례들을 사용해야 한다.

왼쪽 난은 당신으로 하여금 노트하고 교사용 교재를 개인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백을 크게 남겨 두었다.

교사용 교재는 세 주요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교사용 교재 서론, 레슨 계획 그리고 가르치는 자료들.

서론과 레슨 계획들은 이 문서에 나와 있고 자료들은 짝을 이루는 학생용 교재에 들어 있다. 당신은 지금 교사용 교재의 서론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년 학생들을 위한 강의 철학, 마줄을 조직하기 위한 배경 정보, 그리고 레슨을 시행하는데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다.

교사용 교재의 각 부분은 번호가 주어졌는데 두 부분의 페이지 번호가 매겨 졌다. 레슨 3의 페이지 5는 "3-5"로 번호가 주어졌을 것이다. 첫 번호는 레슨 번호이고 두번째 번호는 그 레슨 안의 페이지 번호이다. 각 자료지는 그 자료가 처음 사용된 레슨을 위해 번호가 주어진다. 레슨 2의 첫 레슨 자료 페이지는 "2-1"로 번호가 매겨진다.

레슨 계획들은 그것들 자체로 완전히 끝난다.

그것들은 전반적 관점, 서론, 본문, 그리고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 레슨 관점은 각 레슨을 준비하고 실시하는데 기획 도구를 당신에게 제공해 준다.

레슨 서론은 참여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되고, 그들 이 레슨이 마칠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향하게 하고 의도적 목표들을 밝히고 학습활동을 위해 그들을 준비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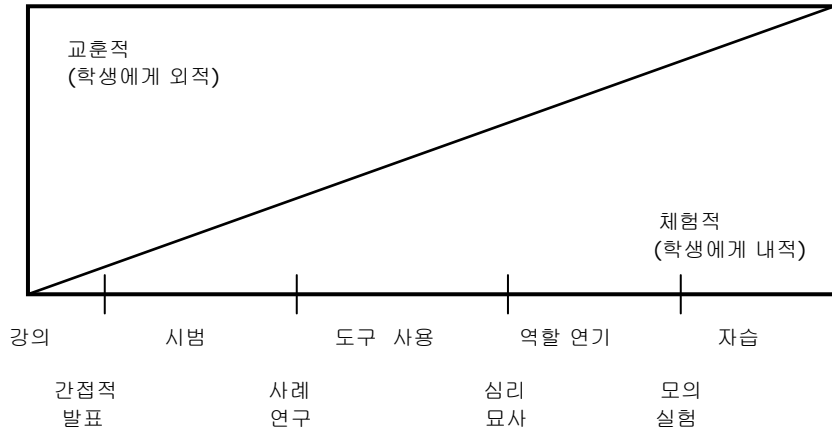
레슨 본론은 레슨의 핵심 메시지이다. 비결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강의 도중에서도 단지 강의를 듣는 것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질문들을 한다.

다음의 표는 달리 가르치는 방법들에 학생들의 연속적인 참여도를 보여 준다. 강의는 학생의 가장 적은 참여를 요구하고 독자적 공부가 학생의 가장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

방법 연속체

낮은 참여도

높은 참여도



여러 학습활동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 지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된다. 각 학생은 보다 좋아하는 셋트의 학습방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배운것을 착색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다른 삶의 체험들 갖고 있다. 다양한 학습활동들은 성년들로 하여금 듣는 것, 행하는 것, 토론하는 것, 혹은 이것들을 배합하는 것으로 배우는 과업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교사 및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새로 배운 것을 명료하게 하고 새 지식을가능하면 빨리 실제 혹은 기획된 상황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한다.

나사렛교회는 그 자체를 “성결”교단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두 현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 운동”으로 알려진 전통으로 부터 자라 나왔다. 우리는 친히 같은 전통에서 태어난 교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결은 우리의 역사적 정체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성결”의 역사적 배경은 또한 결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한데 묶는 “성결” 신학을 필히 암시한다. 그 운동의 교단들과 다른 협회들은 모두가 “성결 교리”에 대한 특별 이해를 주장해 왔는데- 그리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또한 “성결 신학”으로 판명될 수 있다. “성결”이란 바로 그 말은 이 두 현실 곧 “성결 운동”과 “성결 교리”를 줄인 말이 되었다.

이 성결교리의 뿌리는 특별히 동부의 초대 교회 저자들 곧 헬라에서 쓴 그 교부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교리의 측면들은 중세기, 종교 개혁, 영국 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발견될 수 있다. 물론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발전된 성결교리를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다; 그의 역사적 배치 뿐만 아니고 그의 신학적 비전은 감리교단을 형성하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1784년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레 신학이 19세기의 문화, 종교적, 역사적 문맥에 맞추었을 때, 신학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났다.

과거 몇 십년 동안 논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여기 우리의 탐구의 바로 시작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19세기의 변화를 웨슬레의 거대한 향상으로서 찬양되고 굳게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 설교가들이 있어 왔다.

정 반대편에는 그 변화를 신학적 재난으로 보고 18세기 웨슬레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또 가끔 논쟁 자체의 절대 중요한 문제들과 해석 그리고 궁극적 독특성들을 혼돈하고서 의심할 여지없이 중간 어느곳에 서 있는 다른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있다. 논쟁의 측면들은 그것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이름들과 연관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들에 있어 논쟁은 열렬히 행해졌다. 맨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사렛교회의 뿌리가 두가지 원천 곧 웨슬레안과 성결에서 부터 자라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슬레안-성결 교단이다. 이 두 원천들에 적절한 주의를

기하는 것이 이 저자의 시도일 것이다. 두 원천들로 부터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외에 오늘 날 교단을 위해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의제가 있는데 곧 21 세기를 위해 성결 신학을 어떻게 가장 잘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다. “웨슬레로 돌아 가자”는 외침과 “성결 부흥으로 돌아 가자”는 외침을 둘 다 미래를 향해 방향을 고쳐야 한다.

오늘을 배경으로 성결신학의 또 다른 절대 중요한 면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규명되어야 한다. 다음에 오는 레슨들에 나오고 숙고되어질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성결신학, 특별히 완전 성결교리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에서 그 강조점을 잃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명확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너무 혼동하므로 그 건설적이고 명백하며 건실하고, 현실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교리의 확언을 점점 더 찾아 보기 어렵다. 만일 이 교리가 우리 교단의 명백한 “독특성”이라면, 그것이 너무 강력하여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어찌면 조금이라도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다시 주장하고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길은 우리의 성직자의 준비와 교육을 통해서이다. 저자는 위에 규명된 대로 그녀가 현재의 “위기”로 믿는 것에 비추어 이 과제에 친히 헌신하였다. 이 구체적인 마줄이 지금 성결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중대한 준비과정의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바라마지 않는다.

이 마줄의 조직은 기초가 되는 후원 곧 웨슬레의 4 변형의 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위를 고수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웨슬레는 성경이 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경은 전통 곧 어떤 신뢰성을 요구하는 해석의 역사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체험과 성격상 동력적이고 상호적인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이성의 도움을 통해 이해되고 정정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줄의 레슨들은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의 관점에서 성결신학을 고찰할 것이다. 그것은 “성결 윤리”의 영역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관련해서 성결신학과 완전성결교리의 정립을 위한 몇가지 추천안을 내놓을 것이다. 나사렛교회에서 안수받고 사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웨슬레-성결신학의 관점, 특별히 그것의 성결교리를 표명함에 있어서 그 ..를 포착, 고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줄은 우리 교단의 미래의 정체를 확고히 영두에 두고 디자인 되었다.

마줄 자료들

우리는 이 마줄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출수 있도록 하는데 융통성있고 용이하도록 제작하려고 애써 왔다. 각 레슨을 위해 몇가지 밑받침이 되는 작품들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자료들”이라 불러 왔다. 이것들은 많은 다른 방법들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들은 이 마줄의 학생용 교재 안에 또 나와 있다. 교사는 그[녀]가 사용할 수 있게 학생용 교재의 한 사본을 원할 것이다.

4. 교사는 이것들을 복사하여 그[녀] 자신의 강의 개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교수용 교재와 교과서, 혹은 제안된 보충 독서로 부터 노트를 첨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당신 자신의 예증도 또한 첨가하기 바란다!
5. 페이지들은 프로젝터용 투명 용지에 복사하여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6. 이 페이지들은 학생용 교재에 실려 학생들이 사용 및 참여하게 했다.

이 마줄을 제작한 한 가지 이유는 연장교육의 혜택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세계 전역의 교사들이 과목들을 가르치도록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계발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것을 연장 교육가들의 자료로 제공하고 싶다. 만일 그것이 줄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일이다.

이 마줄을 제작한 또 다른 이유는 토착민의 교수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같은 클래스는 학생들의 문화권내에서 나온 어떤 분에 의해 가장 잘 가르쳐 질 수 있고 전후 배경을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 전역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마줄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로 마줄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칠 것을 주장할 때 보다 더 그들의 배경을 위해 그것을 더 동적이고 의미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줄이 마줄이 의도한 결과

나사렛 교회장정 및 *안수개발 국제 표준자료집*은 안수를 위한 교육 준비에 대해 정의한다. 추가로 나사렛 국제교회의 각 지구는 그들의 지구내에서 제공된 안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들에 대해 정의한다. 그 마줄은 후보자들로 하여금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프로그램의 다른 마줄들도 역시 같은 결과들을 다룰 것이다. 이 마줄과 관련된 구체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결과들

- CN 22 웨슬레 신학의 독특한 특징들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능력
- CN 23 웨슬레 관점에서 성결교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CN 27 미국 성결운동과 나사렛교회를 형성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 CP 10 분별,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분석,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애매모호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CP 11 논쟁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전제들과 결과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 CP 21 전후 문맥이 흐르고 신학에 근거한 예배를 계획하고 명령하고, 참여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결과 성명서들

- 교리를 이해하고 판명하는데 유해가 되어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체험 못하게 하는 성결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인정한다.
- 성결을 웨슬레 신학 전체, 곧 구체적으로 폭넓게 정의된 신학적 인류학, 죄론 그리고 구원론과 관련시킨다.
- 성결교리를 위한 구약 성경의 기초들을 알아 내고 판명한다.
- 성결교리를 위한 신약성경의 기초들을 알아내고 판명한다.
- 웨슬레 성결의 선구자들의 인물들과 운동들에 친숙해진다.
-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학을 이해한다.
- 19 세기의 성결신학을 이해한다.
- 성결에 대한 웨슬레와 19 세기의 판명을 비교 및 대조한다.
- 성결과정과 위기를 구별한다.

- 성결여정의 중대한 이정표를 알아 낸다.
- 성결이 웨슬레의 “은혜의 수단”의 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 “성결 윤리”의 기초들을 판명한다.
- 성결신학의 본질-그것이 무엇인가 및 상황/구조-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판명한다.
- 학생들에게 성결에 관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지: 영적 형성의 요소

일지는 교역자 준비 연구과정에 있어 각 마줄의 주요 과제물이다. 그것은 마줄이 내용이나 능률이나 성결 혹은 전후 문맥에 집중하든지 각 마줄의 내용으로부터 영적 의미를 끌어 내고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복합적 요소이다. 그것은 “되다, 알다, 행하다” 중 “되다”의 구성요소는 당신이 참여하는 모든 마줄에 들어 있다. 일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은 의미있게 성취될 수 있는가?

일지: 개인의 반성과 집성의 도구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당신의 준비에 심장이다. 각 마줄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은 강의를 듣고, 몇건의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하고 논문을 써야 할 것이다. 내용 통달이 목표이다.

강의 요목은 이 일지 기록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다. 일지 기록은 마줄을 위해 영적 형성의 요소를 제공하고 학습 체험의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

레슨 1 의 강의 요목 검토 중 학생들로 하여금 일지 기록 부분을 읽게 하고 일지 기록은 마줄의 각 레슨을 위한 과제물임을 강조한다.

각 레슨에서 과제물을 줄 때 그룹이 모일 때마다 일지 기록의 숙제를 낸다.

교역자 준비에 동등하게 중요한 부분은 영적 형성이다. 어떤 분들은 영적 형성의 경건시간이라 하는 한편 다른 분들은 그것을 은혜안의 성장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 당신이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도적 개화이다. 마줄 작업은 사역을 하기 위한 당신의 지식, 당신의 기술, 당신의 능력을 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적 형성 작업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당신 존재의 직물에 함께 짜여질 것이며 당신의 교육이 자유롭게 당신의 머리로부터 흘러 나와 당신의 마음을 거쳐 당신이 섬기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으로 하여금 발전하도록 돕는 많은 영적 훈련이 있을지라도, 일지는 그것들을 모두 한데 묶는 지극히 중요한 기술이다. 일지는 단순히 길을 가면서 당신이 겪은 체험들과 얻은 통찰력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은 훈련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 충실히 기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많은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다른 많은 책임들로 억눌릴 때 옆으로 제쳐 두려고 하는 실습이라고 고백한다. 하루에 5분만 보내도 일지는 당신의 교육과 당신의 영적 성장에 주요 변화를 이루어 놓을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보낸 일지 기록 시간을 고려해 보라. 그날의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반응들과 당신이 클래스에서 얻은 통찰력과 당신이 책에서 수집한 인용구 그리고 두 아이디어가 연결될 때 당신에게 아하! 로 다가온 것들을 당신은 일지의 페이지들에 쏟아 부을 것이다. 이것이 일기와 같지 않은 것은 일기는 개인의 대화가 없이 사건들에 대한 연대적 기록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일지는 당신의 모든 사고, 반응, 기도, 통찰력, 비전 그리고 계획들의 창고이다. 어떤 분들은 각 형태의 반영을 위한 부분들로 된 복잡한 일지들을 기록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은 단순히 흘러 나오는 논평이 보다 많은 도움이 됨을 발견한다. 어느 경우든 매일 일지 기록 시작에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라. 그것은 당신의 사고들을 검토할 때가 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지 기록의 논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펜과 종이다. 어떤 분들은 세개의 고리 바인더에 철할 수 있는 낱장 노트 종이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작문집을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어떤 스타일을 당신이 택하든지 당신에게 맞는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일지를 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만일 일지 기록을 위해 따로 내 놓은 장소가 없으면 그것을 가치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루가 보내고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 본 후에 일지 기록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허나 가족 모임, 저녁활동들, 그리고 피로가 이 시간 할애에 영향을 미친다. 아침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취침은 그 전날의 많은 체험들을 걸러 내고 깊은 통찰력들을 정리해 주는 만큼 그것은 아침에 맨처음의 일로 기록될 수 있다. 경건의 시간과 관련하여 일지 기록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체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당신 마음에 나중일로 미루어온데 젖은 마줄 자료와 함께 짜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일지를 휴대하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한 날을 통해 가끔 당신에게 와 닿는 아이디어들을 적어둘 수 있게 할 것이다.

일지 기록은 손으로 쓰는 연습임을 제외해 온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컴퓨터로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손과 펜과 종이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보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미적이다. 그것은 유연성이 있고, 휴대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하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일지는 당신의 여정의 창고이다. 매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당신의 작품을 검토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주말에 매주의 기록을 숙독한다.

요약을 진술하고 성령의 운동이나 당신 자신의 성장을 적으라. 30일마다 당신의 일지의 월 검토를 하라. 이것은 반나절은신하여 홀로 침묵속에 행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것을

행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적된 가치와 당신의 마쭈 학습과 당신의 사역의 체험 모두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들로 함께 나아움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통합이다-믿음의 성장과 학습을 함께 짜는 것이다. 통합은 정보를 당신의 머리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옮기므로 사역이 행함이라기 보다 되어감의 문제가 된다. 일지 기록은 당신으로 하여금 교육의 중심문제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왜 하는가?”

일지 기록은 정말로 사역 준비의 멈추개이다. 당신의 일지는 내용 통달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여정의 연대기이다. 이 일지들은 당신의 교육을 함련하여 일하게 할 풍부한 통찰력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일지는 통합을 위한 도구이다. 당신은 일지 기록과정을 소중히 여길지이다!

참고 서적

Bassett, Paul M. “Culture and Concupiscence: The Changing Definition of Sanctity in the Wesleyan Holiness Movement, 1867-1920.”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8 (199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28-4.htm

_____, ed. *Great Holiness Classics*. Vol. 1, *Holiness Teaching: New Testament Times to Wesle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7.

_____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Brown, Raymond E. *The Epistles of John*. In *The Anchor Bible*. Edited by William F. Albright and David M. Freedman.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mpany, 1982.

Callen, Barry L., and Richard P. Thompson, eds. *Reading the Bible in Wesleyan Way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4.

Carver, Frank G. “Biblical Foundations for the ‘Secondness’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2 (Fall 198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1-25/22-10.htm

Cell, George Croft.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35.

Clarke, Adam. *Clarke's Commentary*. Nashville: Abingdon Press, n.d.

Coppedge, Allan. "Entire Sanctification in Early American Methodism: 1812-1835."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3 (Spring 197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3-3.html

Dayton, Donald W. "Asa Mahan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Holiness Theolog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9 (Spring 1974).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9-7.htm

_____.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1976.

Deasley, Alex. "Entire Sanctification and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Perspectives on the Biblical View of the Relationship."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4-03.htm

Dieter, Melvin E. "The Development of Holiness Theolog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 (Spring 1985).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6-20/20-05.htm

_____.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7.

_____. *The Holiness Revival of the Nineteenth Century*.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0.

Dunning, H. Ray. *Grace, Faith, and Holiness: A Wesleyan Systematic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8.

_____. *A Layman's Guide to Sanctifica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_____, and Neil B. Wiseman, eds.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Greathouse, William M. *From the Apostles to Wesley: Christian Perfec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9.

_____. *Wholeness in Christ: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Holines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8.

Grider, J. Kenneth. *Entire Sanctification: The Distinctive Doctrine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0.

Jackman, David. *The Message of John's Letters*. In *The Bible Speaks Today*. Edited by John R. W. Stot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Knight, John A. *All Loves Excelling: Proclaiming Our Wesleyan Messag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5.

LeClerc, Diane. *Singleness of Heart: Gender, Sin, and Holi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2001.

Lennox, Stephen J. "Biblical Interpretation, American Holiness Movement, 1875-1920."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Spring 199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3-1-02.htm

Lindstrom, Harald. *Wesley and Sanctification: A Study in the Doctrine of Salvation*. Wilmore, KY: Francis Asbury Publishing Company, 1981.

Lovell, Ora D. "The Present Possession of Perfection as Presented in First Joh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8 (Spring 197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06-10/08-4.htm

Maddox, Randy. "Holiness of Heart and Life: Lessons from North American Methodism."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65-93, 141-56.

_____. "Reconnecting the Means to the End: A Wesleyan Prescription for the Holiness Movemen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1998).

_____.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4.

Marshall, I. Howard. *The Epistles of John*. I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Edited by F. F. Bru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Massey, James Earl. "Race Relations and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1-1-02.htm

Mattke, Robert A.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s Related to the Work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5 (Spring 1970).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01-05/05-3.htm

Oswalt, John N. "Wesley'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His Doctrinal Teaching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2 (Spring 197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11-15/12-5.htm

Palmer, Earl F. *1, 2, 3 John, Revelation*. In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Edited by Lloyd J. Ogilvie. Waco, TX: Word Books, 1982.

Powell, Sam, and Michael Lodahl. *Embodied Holiness: Toward a Corporate Theology of Spiritual Grow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Purkiser, W. T.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1, *The Biblical Foundation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Reasoner, Victor P.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s Paradigm Shift Concerning Pentecos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Fall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1-2-7.htm

- Shelton, R. Larry. "A Wesleyan/Holiness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Fall 1998). (Not online as of February 2004; coming soon).
- Smalley, Stephen S. *1, 2, 3 John*. In *Word Biblical Commentary*. Edited by David A. Hubbard and Glenn W. Barker. Waco, TX: Word Books, 1984.
- Staples, Rob L. *Outward Sign and Inward Grac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 _____. "Sanctification and Selfhoo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Wesleyan Messag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7 (Spring 1972).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06-10/07-1.htm
- Strong, Douglas M. "Sanctified Eccentricity: Continuing Relev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Holiness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 Tracy, Wesley D. "The Cleansing Blood of Jesus." In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Edited by H. Ray Dunning and Neil B. Wisema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259-71.
- _____, E. Dee Freeborn, Janine Tartaglia, and Morris A. Weigelt. *The Upward Cal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4.
- Turner, George All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the Wesleyan Tradi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11-15/14-05.htm
- _____. *The Vision Which Transforms: Is Christian Perfection Scriptura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4.
- Wesley, John.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1.

- _____. "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III i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n.d.
- _____.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Works of John Wesley*. Third edi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8.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Reprinted from the 1872 Jackson edi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6.
- Westcott, Brooke Foss.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 Williams, R. R. *The Letters of John and James*. In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Edited by P. R. Ackroyd, A. R. C. Leany, and J. W. Pac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 Willimon, William H. *The Service of God: Christian Work and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Wood, Laurence W. *Pentecostal Grace: A Theology of Christian Experience*. Wilmore, KY: F. Asbury Publishing Company, 1980.
- Wright, John W. "Toward a Holiness Hermeneutic: The Old Testament Against Israelite Relig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30-2-04.htm
-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단원 1

예비 문제들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정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5	예비 문제들	강의	자료 1-1 자료 1-2 자료 1-3
1:1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학생용 교재

단원 서론

(15 분)

오리엔테이션

당신 자신을 클래스에 소개하라

학생용 교재에 있는 강의 요목을 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 장소,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게 한다.
당신은 싸인 용지를 돌려 모두가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교환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줄 비전성명서를 다 읽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출석, 숙제, 수업 참여
요구사항들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어떤 질문들이 있는가?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에게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학생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단원을 미리 조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경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참여자들은

- 성결에 대한 오해들을 알아내고
- 우리 나사렛 유산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 성결신학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 거룩과 성결을 구별해야 한다.

단원 본문

강의/토론: 예비 문제들

(60 분)

*이 질문들을 갖고 있으라. 당신은 학과
끝말에 다시 그 질문들로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과 관심들에 열중하게 한다.
판단이나 반응없이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허락하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과 성결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들을 알아 보도록 하자.

칠판에 우리의 질문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자.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사본을 갖고 있기를 원할 것이다.

이 마줄이 이 질문들을 다룰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나사렛 성결교리의 중요성

성결의 삶을 살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선포는 나사렛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성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두 근본 원천을 갖고 있는데 곧 요한 웨슬레 신학과
19 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성결운동으로 알려진 운동이다.
이 마줄은 학생들로 하여금 웨슬레 성결전통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돕고 성결체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우리는 전통안에서 성결신학과 성결교리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요한 웨슬레 신학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신도 성결교리의 면들을 선포한 그 전
원천들을 해석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웨슬레 신학에 대한
다양하고 무수한 해석들이 있어 왔지만 어떤 해석들은 웨슬레
신학이 그의 생애 중 수십년을 두고 발전시킨 것을 참작하지
않았다.

성결운동은 웨슬레의 견지들을 변경했지만 분명 확실적이지는
않았다. 운동 그 자체안에는 성결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웨슬레와 성결운동과 나사렛
교회의 각색 이후 웨슬레를 이해하려고 애쓴 해석가들이 있어
왔다.

수십년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세기를 통해 성결한 삶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있어 왔다. 그동안 교리에 신학자들의 여러
뉴앙스 첨가와 더불어 우리의 사상에 신학적 발전이 있어
왔다.

심지어는 때때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한 역사에 비추고 그 교리를 장래 나사렛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진정한 필요에 비추어 여기 우리의 과업은 분명 단순한 것이 아니다. 허나 무수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교사들의 심중으로부터의 외침은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능하면 단순히 전하는 것이다.

성결과 관련된 개념들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의 장벽들 보다 그리고 교리의 보다 섬세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다른 의견들의 장벽들 보다 더 깊은 진정한 체험과 삶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사랑안에 성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교리보다, 추상적인 사고보다 일할 만한 시스템을 한 데 모으는 것 보다 훨씬 이상이라는 사실의 시각을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진정한 사람들과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삶에 관한 것이다. 한 신학자가 보는 대로 교리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한다면 오로지 일할 뿐이다.

우리는 성결과 관련된 오해들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토론을 시작할 것인데 그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모든 건설적인 해석들 밖에 있다.

잘못된 개념들

성결이 아닌 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의 시작으로 성결인 것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자.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신학을 곡해할 뿐 아니라 불건전하게 하고 심지어는 가끔 악용한 여러 오해들이 교회에서 일어 났다. 우리의 역사속에 이 잘못된 생각들이 참으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아주 요구적인 시기들도 있었다. 우리는 거룩과 성결에 대해 부적합한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을 떠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밀드레드 밴스 와인쿱은 우리의 신학을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한 성결신학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녀의 웨슬레 신학에 대한 재 조정과 재 표명을 통해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 교단을 "구원"하는데 돕는 자로 생각한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가 "신용의 갭"이라 일컫는 것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그녀가 의미하는 이것은 성결의 왜곡된 관점들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의 큰 차이를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한다는

See Wynkoop,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chapter 3.

것이다. 와인쿱은 이 갭을 우리 신학의 현실적이고 생명을 주는 삶의 표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전래된 개념을 반격함으로 우리의 성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두고자 한다. 이 열거가 전부 아니고 이 마줄의 저자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려고 시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완전 성결은 기독교 삶의 목적지이다.
2. 완전성결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져가 버린다.
3. 우리가 완전히 성결되기 전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
4. 완전히 성결되지 못한 자들은 죄인들이고 제 2 계의 시민들이다.
5. 완전히 성결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6. 율법주의적 자기 의는 거룩이 보여지는 것과 흡사하다.
7. 무죄가 성결된 삶의 목표이다.
8. 완전히 성결된 자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9. 거룩과 완전 성결은 동의어이다.
10. 성결된 삶의 기대들에 맞게 살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1 을 참조하라.

가능하면 이 강의 전반에 걸쳐 당신 자신의 체험의 실례들을 나누라.

거짓: 완전 성결은 기독교 삶의 목적지이다.

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세가지 위험스런 암시들이 있다.

- 첫째, 완전 성결의 체험이 크리스찬 성장의 끝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완전 성결체험 이후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체험 전의 강조와 꼭 같이 중요하다.
- 둘째,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체험의 꼭대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음을 암시하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도록 만드셨다. 완전 성결은 중대한 경지지만 분명 가장 높은 경지의 체험은 아니다.
- 셋째, 우리는 결코 우리가 체험을 구하고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된다. 완전 성결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완전 성결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체험을 끊어 버리면 그것은 불행이다.

거짓: 완전 성결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버린다.

우리가 다음 레슨을 충분히 조사해 보면 죄는 우리의 성결에 대한 이해와 관련시킬 때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가져가 버릴 것은 언제고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자유 의지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선택들을 가져가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는 우리에게 “경이적인 것”을 제공하시지만 성령께 응답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완전 성결 후에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것은 웨슬레 자신이 직면한 (완전주의자 논쟁) 일이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좌절시켜 버렸다.

거짓: 우리가 완전히 성결되기 전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 반대됨을 알아내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것은 계속 되어온 논제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안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생의 순간이다. 그러나 보다 더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전에 알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은 우리의 삶속에 아주 활동적이시다.

우리는 성령이 모든 개인의 삶속에 날 때부터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속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의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시킨다고 믿는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그러한 믿음에 의해 사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은 이 순간부터 신자안에 내주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2 를 참조하라.

거짓: 완전히 성결되지 못한 자들은 죄인들이고 제 2 급의 시민들이다..

죄와 구원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이다. 우리의 역사상 신생의 체험이 덜 강조되어 위험한 경지에 빠질 정도로 성결이 지나치게 강조된 때가 있었다. 결과로서 완전성결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이 크리스찬 삶은 때때로 거의 아니면 전혀 승리가 없는 무서운 죄의 노예가 된 생활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레슨에서 볼 것 처럼 웨슬레 사상에 명백히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성결된 자들을 완전

성결되지 않은 자들보다 “더 낮게” 보아서 안된다; 완전성결로 향하는 길 도중에 있는 자들을 보다 덜 된 크리스찬들로 보아서도 안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철저히 크리스찬이다.

이 잘못된 생각의 자연적 결과는 완전 성결의 가장 훌륭한 후보자들은 타락자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부터 떨어져 나가 보다 깊은 헌신을 하기 위해 아무런 선행 조건도 분명히 없다. 완전 성결이 체험을 표현하는 일부 사람들의 말, 곧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 생을 재 헌신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실패 혹은 길 잃은 것이 체험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첫번째와 두번째 은혜의 역사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거짓: 완전히 성결된 자들만 하늘에 간다.

이 구전은 히브리서에서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는 절을 잘못 해석한데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다. 이 엉뚱한 잘못된 개념은 거룩을 완전 성결로 와해시킨 잘못에서 자라 나온다. 다음에 오는 레슨들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처럼 거룩은 훨씬 더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역사는 우리의 신생 순간부터 영적 여정의 중대한 단계인 완전 성결을 포함하여 천국에서 우리의 영화를 누릴 때 까지 우리에게 행해진다. 오직 이 단계에 이른 자들만이 영생의 후보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를 악용하는 짓이다. 보다 더 애매한 암시가 이 구전의 일부로 여기서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문제로 유도한다.

거짓: 율법주의적 자기 의는 거룩이 보여지는 것과 흡사하다.

아무도 실제로 이것을 말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방관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고 한 시기들이 있었다! 만일 거룩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저락된다면 율법주의가 속히 따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직면한 문제였다. 그들은 오직 외적인 것들만 보았고 마음과 내적 생활의 중요성을 잊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의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을 잊었다.

바울은 그의 빌립보 서신에서 그가 율법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했다는데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안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다. 개인의 거룩의 필요를 강조하는 위험들 중의 하나는 우리는 그것의 목적을 잊고 그것 자체로 끝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는 레슨들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거룩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거짓: 무죄가 성결된 삶의 목표이다.

우리가 거룩을 어떤 것 즉 죄의 부재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 빈약하고 그릇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 삶의 핵심을 잃어 버릴 위험에 처한다 라고 한 웨슬레의 해석은 옳다, 거룩은 어떤 것 곧 사랑의 현존이다. 와인 쿵은 기록하기를 "사랑은 거룩의 본질적인 내적 성품이고 거룩은 사랑에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런데 사랑은 완전히 이성적이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리는 반항 행위로 정의한다면 죄 없는 생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삶은 그것이 진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참으로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룩에 대한 웨슬레의 정의이다.

Wynkoop, Theology of Love, 24.

학생용 교재에 있는 1-3 을 참조하라

거짓: 완전히 성결된 자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이것에 대한 성경의 즉각적 반격이 있는데도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혼동을 일으키는 신화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밝히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날 때 부터 죄가 없었고 모든 면에 거룩하셨는데도 그는 친히 시험을 당하셨음을 믿는다. 허나 사람들은 가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시험이 줄어들다는 믿음 아래 고투를 겪는다. 만일 완전성결을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을 기대함으로 이 결과를 갖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시험받음을 발견하게 되면 필요없는 이유 때문에 영적 자기 의심의 형태로 큰 고통이 일어 날 수 있다.

거짓: 거룩과 완전 성결은 동의어이다.

이 잘못은 쉽게 저지를 수 있다. 지름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지름길들 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신학적 전문 표현으로 거룩과 성결은 사람이 거듭날 때 시작된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초기** 성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다음 사람은 은혜안에 자라고 거룩과 성결안에 진보해 간다. 나중에 사람은 **완전성결**이란 부르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진보적 성결은 또한 영화로 알려진 우리의 최종 성결때까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성결의 모든 단계를 가능하게 하신다.

거짓: 성결된 삶의 기대들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전 세대들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그들의 열정으로 율법주의와 놀아났을지도 모르지만 보다 젊은 세대들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보다 흔한 일이다. 일반적 복음주의는 그들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멧세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완전 구원"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우리는 웨슬레 사람들로써 크리스찬 삶이 죄와 실패의 영원한 순환으로 운명 지어져 죄의 힘이 은혜의 능력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멧세지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세상 창조전에 우리가 마음과 삶에 있어 그리스도와 같게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성실하신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5:24).

토론 지도 : 학생반응

(10 분)

이 그릇된 개념들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더 탐구해 나가는데 서론 역할을 해 왔다. 그것은 웨슬레 자신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공되었는데, 그는 신학의 어떤 특면을 먼저 소극적인 것을 보여 줌으로 정의해 나가는 수사학적 형태를 사용하였다.

학생의 상호 참여와 반응을 허용하라..

당신은 이 그릇된 개념들 중 어떤 것에 직면해 보았는가?

당신은 친히 그것들을 어떤 것으로 고투해 보았는가

당신은 거룩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마음과 생의 거룩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기로 하자.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이 레슨을 위한 목표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보도록 한다.
당신은:

- 거룩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을 알아낼 수 있는가?
- 우리나라사렛 유산의 복잡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 성결신학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알아낼 수 있는가?
- 거룩과 성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주 우리는 성결의 중대한 신학기초들을 볼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죄에 대해 당신이 신학적 관점에서 믿는 바에 대해 3 페이지의 수필을 쓰라

일지를 쓰라. 이 과제는 지속된,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단원

신학 기초들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학생 수필	소그룹	숙제
0:30	신학 기초들	강의	자료 2-1—2-5
1:1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Bassett, Paul M. "Culture and Concupiscence: The Changing Definition of Sanctity in the Wesleyan Holiness Movement, 1867-1920."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8 (199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28-4.htm

Dunning, H. Ray. *Grace, Faith, and Holiness: A Wesleyan Systematic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8, 273-394.

Maddox, Randy. "Holiness of Heart and Life: Lessons from North American Methodism."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65-93, 141-56.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102-24, 149-64.

단원 서론

(10 분)

책임

몇명의 학생들에게 첫 단원에서 어떤
중대한 아이디어들을 그들이
기억하는지 물으라.

웨슬레 잡지의 원천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는지 물으라.

오리엔테이션

많은 신학 주제들이 성결공부를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이 주제들 중 몇개를 살펴 볼 것이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에게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학생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단원을 미리 조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경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신학적 인간론을 성결교리와 관련시키고
-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는 성결의 영향을 설명하고
- 인간 성품과 죄의 성품을 구별하고
- 죄론을 성결 교리와 관련시켜야 한다.

단원 본문

소그룹: 학생 수필

(20 분)

클래스를 약 3 명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들 사이들을 돌아가면서 견해들을 묻는다.

시간이 허락되면 그룹들로 보고하거나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잘 기술된 것 같은 그[녀]의 수필을 읽도록 한다.

숙제물들을 모으라. 당신은 사고에 대한 당신의 평론과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면서 숙제물들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성적을 매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대, 성적이 이 이 마줄을 마치는 의도가 아닌 까닭이다. 완성은 출석, 참여, 능력 진술들에서 보여지는 역량에 기초한다.

당신의 그룹에서 서로의 수필을 읽는다. 서로의 질문들을 묻고 진술들을 뒷받침할수 있게 서로 도전한다.

각 수필에서 유사성들과 차이성들을 찾아 본다

강의: 신학 기초들

(45 분)

우리가 성결의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신학문제들을 확실히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중요하다. 이 상호 연결된 신학이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 죄-개인 죄와 원죄; 그리고 구원. 이 강의는 이 문제들에 대한 관점이 골격 역학을 할 것이다. 다른 마줄들은 이 교리들의 형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해 줄 것이다.

다음의 것은 역시 이 마줄의 저자가 쓴 마줄 요한 웨슬레 탐구에서 발췌 및 각색한 것이다.

인간성

인간들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또한 신학적 인간론으로 알려진 것-에 기초가 된 것은 인간은 관계적이라는것이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웨슬레의 해석가들은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에 대한 바로 그 정의가 이 사랑할 수 있는 역량임을 강조해 왔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2-1 을 참조하라.

다른 전통들은 형상을 여러 방법으로 정의했다. 초대 교회 시기에는 이단처럼 보였던 형상에 대한 해석은 형상이란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닮은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경에는 신이 의인화된 형상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통주의는 이것들은 은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상에 대한 많은 서양 해석가들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내주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위대한 구교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1245)를 포함하여 많은 고전 신학자들과의 견해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급 조직에 있어 인간 보다 상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인간도 계급 조직에 있어 땅 보다 상위에 있다. 역시 또 형상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의 자유에 관한 해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창조하셨다.

웨슬레는 이 여러 해석들을 알고 있었지만 와인 쿵과 다른 분들에 따르면 그는 형상을 사랑으로 강력히 고수하였다. 레이 더닝과 다른 분들은 그것을 인간의 본래 의도된 대로 의 분명한 관계로 확대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과 세상을 적절히 사랑하도록 창조함 받았다.

인간에 대한 웨슬레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타락 후에도 형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심각하게 찌그러졌지만 말살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웨슬레에게 구원은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성결을 포함하여-우리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및 갱신의 과정이다. 형상이 타락 후에 남아있다는 이 개념은 어떤 웨슬레 해석가들로 하여금 전적 타락 대신 전적 상실의 교리를 말하게 했다.

타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 관계를 상실함으로 우리의 다른 관계들도 찌그러졌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과 갱신의 소망은 남아있다. 그런데 웨슬레-성결의 관점에서는 선행의 은총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즉시 베풀어 진다. 다른 한편 전적 타락에 대한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의 교리는 낙관적이 못된다-타락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세상은 절망할 정도로 부패했다.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아주 다른 두 이해는 웨슬레와 칼빈에게 있어서 죄와 구원에 대해 아주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죄

죄를 토론하자면 여기서 다루어져야 될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곧 개인 죄와 원죄이다. 이 신학기초들이 놓여지지 않고는 성결교리, 특별히 완전 성결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 죄

학생용 교재 2-2 를 참조하라.

가끔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레주의자들은 신자들의 삶속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 논쟁한다. 하나 이 두 전통들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개의 아주 다른 이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항상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논쟁들은 중요한 정의들에 기초한다. 요한 칼빈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거나 과녁을 빗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지 않은 어떤 특성이나 인간의 불완전한 것들은 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이해할 만하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많다.

그러나 웨슬레주의자들은 의지에 의한 죄의 요소를 강조했다. 웨슬레에게 죄는 하나님의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의지적 위범이다. 환언하면 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에 거스리는 의식적인 반항의 행위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타입의 반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 이 정의는 서열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해석의 일면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정의를 사용하면 죄에 대한 승리가 있다. 하지만 웨슬레는 이 정의를 죄의 유일한 정의로 내놓지 않는다.

예를들면 웨슬레는 재빨리 범하는 죄뿐만 아니고 태만의 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범하는 죄는 우리에게 금지된 행위를 범할 때이다. 우리는 법을 위반한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죄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을 알고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기를 생략할 때 -마다 정정을 위한 꼬리표임을 명확하게 했다. 아주 실제적 의미로, 특별히 마태복음 25 장에 비추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자와 옥에 갇힌자를 방문하고 다른 긍휼의 행위들을 보여야 한다. 허나 우리의 대부분은 매일 이것들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 마찰의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는 “성결이 어떻게 이런 형태의 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필요는 더 깊어만 가는데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고백하게 된다. 환언해서 자명한 법을 깨트리거나 심지어 선한 행위를 생략하는 문제는 우리가 은혜안에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적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성령께서 그의 빛어서 모양나게 하는 역사로 우리의 마음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마다 경건되이 슬퍼해야 한다.

웨슬레는 성결이 무죄로 인도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지쳤다. 그의 보다 깊은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곤궁한 세상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분별하는데 성장해 가는 것이었다. 가끔 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요한이 그의 첫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웨슬레는 요한을 따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이상으로 자랄 때 우리의 동기는 변화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성결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웨슬레가 진술한 대로 사랑은 죄를 배척한다.

원죄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원죄의 본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우리의 조사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Diane Leclerc, Singleness of Heart: Gender, Sin, and Holi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Scarecrow Press, 2001).

교재에 있는 자료 2-3 을 참조하라 학생.

"원죄"에 설교 44 의 문단 11.1-10, Works (Jackson), 6:57-62.

같은 책 문단 11.7, 6:60.

같은 책 문단 11.9.

웨슬레의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교만으로서의 원죄에 대한 전통적-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랐지만 웨슬레의 새 해석은 이 마줄의 저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웨슬레는 교만을 종종 사용했지만 그것은 결코 이 분석에 의하면 원죄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원죄"의 주제에 대한 웨슬레의 가장 직선적인 설교(1754)는 교만이란 단어가 강조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이상숭배가 명확하게 그 밑에 열거된 "교만", "완고" 그리고 "세상사랑" 과 더불어 원죄의 근본적 정의로 분류되어 있다.

웨슬레는 "모든 교만은 이상숭배이다"고 말한다: "세상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두가지 형태의 원죄가 있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교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인데, 여기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다; 웨슬레는 이 문구를 더 설명해 나간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보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런 것은 무엇인가? "웨슬레는 또한 "영적 이상숭배" 라는 제목의 설교를 썼는데 그는 그것을 그의 생의 종말에 근접하여 서필하였다. 한 구절을 충분히 인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특유한 사랑으로 친척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크리스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만드신 특별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들을 “열렬히 사랑하라” 고 우리는 명령받았다; 허나 역시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힘과 애정의 온유함을 유지하되 영혼에 흠점이 없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가능함을 안다.. 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어떤 욕망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애정을 가질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거기에 우상숭배는 없는가? 그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한데 결합시킨 자들에 의해서도 신중히 고려되도록 하자; 남편들과 아내들,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들이 포근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우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허락도 받지 않았다. 허나 얼마나 이 일이 흔한가! 얼마나 자주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착시키는가!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피조물에서 찾지 창조주에게서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분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원하는 주요 목표로 바라본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는 당신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당신은 내가 그리워 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바램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함에 있어요! 이제 이것이 노골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거룩과 성결이 전파되는 방법에 중대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원죄는 또한 미국에서 성결신학이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화제였다. 포비 파머-저자요, 부흥사요 신학자-는 19 세기 성결운동에 의의있게 연루되었던 죄와 성결의 교리들을 발전시켰다. 우리는 단원 7 에서 그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 우리의 목적들을 위한 영적 우상숭배에 대한 토론에서 웨슬레를 따르지만 여자의 관점에서 말한다.

영적 생활을 방해한 것들-이기심, 믿음의 결핍, 육신의 배반-에 대한 전통적 탄원기도들을 복창하기 보다 파머는 아주 솔직하게 그녀의 영적 성장에 전통적 근본적 방해물은 “적절한 보살핌을 요하는 큰 집” 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완전 성결에 대한 그녀 자신의 체험은 남편과 자녀들의 “우상들”을 버리는 것을 포함하였다. 성결에 대한 파머의

학생 교재에 있는 자료 2-4 를 참조하라.

체험은 일종의 이 땅의 애정과 가정의 의무들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했지만 그러한 해방은 가정 관계의 불만족으로부터 유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전 존재로-경쟁심 없이-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한다. 따라서 성결, 사랑에 대한 웨슬레 자신의 우선적 정의는 자기에 대한 전통적 우상숭배를 뒤엎음을 통해서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상숭배를 뒤엎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웨슬레와 성결 운동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행한 것은 남은 인간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음을 강력히 믿었다. 허나 흥미롭게도 그는 이 영향들이 어떻게 본래의 사실 만큼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웨슬레가 관심을 둔 것은 원죄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문제이다. 서양신학은 원죄상태에 있는 것 곧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부패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무것도 개인적 및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앞에 유죄하게 만든다고 논한다. 부패 뿐만 아니라 유죄도 물려 받는다. 하지만 웨슬레는 원죄는 유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유죄하다. 어떤 분들은 웨슬레가 죄의 주제에 대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웨슬레는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라고 불림을 받았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3 세기 후기와 4 세기 초기 동시대의 사람들이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유죄만 물려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부패도 물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는 우리가 천부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 난다고 확증했다.

다른 한편 어거스틴은 원죄와 전적 타락과 물려받은 유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리들을 열심히 밀고 나갔다. 논쟁의 결론은 펠라기우스는 정통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웨슬레는 그에 대한 약간의 동정을 보였을지라도 그를 거부하였다. 허나 그는 어거스틴의 교리와 병행하지도 않는다.

선행의 은총에 대한 웨슬레의 교리를 통해 중간 입장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은혜는 그 인간에게 은혜의 자유를 준다. 비록 죄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 물려 받았을지라도 은혜가 주어져서 범죄-실제의

죄-는 우리가 정당히 책임져야 할 선택으로 주장 되어진다. 물려받은 유죄에 대한 웨슬레의 거부는 확실한 예정론에 밀어 넣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어거스틴의 죄론은 아주 강력하여 오직 예정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행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웨슬레는 그의 우주적인 선행의 은총을 통해 이 논리적인 결론을 피하였다.

원죄의 중대성과 의미는 변천되고 우리의 역사를 거쳐 발전되었다. 나중 단원들에서와 이 변경들을 밝히는 것은 절대 필수적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2-5 를 참조하라.

구원

웨슬레의 계획 개요에서 구원은 학술적인 면에서 그리스찬 여정의 전부이다.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결의 과정을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단계를 밟을 때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란 언어를 사용하는데 단지 구원의 순간이나 찰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칼빈주의 친구들로부터의 중요한 구별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부여된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누어 주신 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실지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 구세주로 영접할 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칭의: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의 의식은 사라져 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거스려 범죄한 것에 대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중생: 구원에 대한 웨슬레의 가장 좋아 하는 말은 "신생"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중생,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양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확증했다. 구원의 이 측면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 곧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안으로 태어남을 의미하지 못하게 한다.

구속: 구속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출애굽은 구속의

은유로 행사한다. 구속은 또한 새 목적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들과 같이 산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인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속으로 들어감으로 정복된다는 의미이다.

초기 성결: 이것은 구원의 순간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고 보다 깊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향, 우리의 목적 그리고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실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 지도: 학생 반응

(10 분)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인간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웨슬레의 죄에 대한 반응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이 구원에 대한 말들 중 특별히 어떤 말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신학적인 인류학을 성결교리와 연관시킬 수 있는가?
- 성결이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인간 성품과 죄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 죄론과 성결교리를 연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주 우리는 성결에 관한 구약성경의 기초들을 조사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다음의 구약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주석이 이용 가능하면 주석책들을 참고하라:

창 3; 레 17:1- 26:46, 특별히 19:18, 20:7; 신 6:4-5; 10:16; 30:6; 시 15, 29, 37, 51, 93, 110; 사 6; 겔 36:23-27; 속 13:1 읽으면서 마음에 떠 오르는 가능한 질문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쓰라. 토론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상기 구약본문들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교 개요를 만들라.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둠]

단원 3

구약 성경 기초들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구약 성경 기초들	강의/토론	자료 3-1 자료 3-2 자료 3-3
0:55	설교학적 검토	강의/토론	자료 3-4 숙제물
1:25	단원 결론	숙제 검토, 배당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독서

Callen, Barry L., and Richard P. Thompson (eds.). *Reading the Bible in Wesleyan Way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4.

Knight, John A. *All Loves Excelling: Proclaiming Our Wesleyan Messag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5.

Purkiser, W. T.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1, *The Biblical Foundation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Oswalt, John N. "Wesley'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His Doctrinal Teaching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2 (Spring 197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5/12-5.htm

Tracy, Wesley D. "The Cleansing Blood of Jesus." In *Biblical Resources for Holiness Preaching: From Text to Sermon, Vol. 2*. Edited by H. Ray Dunning and Neil B. Wisema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0-1993, 259-71.

Turner, George Allen. *The Vision Which Transforms: Is Christian Perfection Scriptura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4. 13-52.

한 사본을 제출하고 한 사본은 나중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

Wright, John W. "Toward a Holiness Hermeneutic: The Old Testament Against Israelite Relig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26-30/30-2-04.htm

단원 서론

(10 분)

책임

짜을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설교 개요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들과 의견을 제공하게 한다.

숙제를 돌려 주고 거둔다. 학생들은 그들의 설교 한 사본을 제출하고 다른 사본은 나중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동 교재에서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경각시킨다. .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믿음의 유추” 에 대한 주제들을 판명하고
- “믿음의 유추”를 구약신학과 관련시키고
- 구약성경에 나온 성결의 주요 본문들을 밝히고
- 본문을 설교로 옮기는데 기초적인 것들을 밝힌다.

단원 본문

강의 / 토의: 구약성경 기초

(45 분)

구약성경에서의 기록

다음의 두 주제에서 다룰 정도의 성경상에 나온 성결교리의 주제를 찾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록 및 성결신학에 초점을 둔 학자들의 깊은 호흡은 엄청나다. 양면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토론된 문제들이 또한 있지만 둘 다 똑같이 섬세한 강해를 포함하는데, 가끔 단지 한 단어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주어진 교재의 공부들은 기초적인 개관들이다. 이점에 있어 교역자는 항상 그랬듯이 평생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결교리에 대한 명확한 그[녀]의 성경적 기초지식을 깊게 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의 자료집

구약과 신약에 나온 성결에 대해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웨슬레 방법들의 몇가지의견을 우리 자신이 상기하는 것은 이로운 일이다. 웨슬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충고를 하였다. 그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찾아 내고 "본문 교정"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 필요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원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본문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황을 조사하였다.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4), 38.

랜디 매닥스가 진술하는 것 처럼 그는 "성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이 진리들을 공동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임을 믿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본문들이 이 진리들에 비추어 밝혀져야 함을 요구했다". 나사렛교회는 교인들의 추측 영역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안에서의 삶과 우리의 성결의 추구에 비 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 왔다. 그런데 구원과 성결의 진리가 세기들을 통해 체험되고 입증된 사실에서 그 권위를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 중 웨슬레 성결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적 성결신학을 결정적 본질로 본다.

이 다음 토론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약성경에 나온 성결에 대한 지극히 간략한 개관이다. “거룩한” 혹은 “거룩” 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830 회 이상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말은 광채, 분리, 그리고 정결의 의미들을 전한다. 그것의 정반대는 공통, 평범, 세속, 혹은 성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결은 거룩에 대한 말의 파생어로서 가장 흔하게는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만 성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도 그러한 물체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람은 안이 깨끗이 씻으받거나 정결케 되는 의미에서 성결될 수 있다. 사람은 완성 혹은 온전의 의미에서 “완전” 해 질 수 있고 정결케 하시고 도덕적으로 고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양식은 창세기 본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다.

모세 오경

Refer to Resource 3-2 in the Student Guide.

창세기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간과 죄에 대한 기초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립해 줄 것이다. 3 장에서 우리는 타락에 대한 묘사를 발견한다. 그 사건의 결과들은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들에서 계속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또한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른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역시 주용하다. 언약을 세우는 전후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흠 없이 행하라” (17: 1) 고 명령하신다. 죄의 결과로 온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의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애굽의 권세 아래서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은 히브리 민족을 발견한다. 우리는 또한 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본다. 책 전체가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의 노예신분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거룩한 약속의 땅을 향한 이동의 은유로 보여 진다. 우리는 이 주제를 초기 성결운동의 찬송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성결”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시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의 한 지파를 발생하게 했다. 십계명을 주심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한정 요소들을 제공해 준다.

레위기

레위기는 17 장과 26 장 사이에서 발견되는 성결 법전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의식과 윤리 법규들에 대한 긴 기록이다. 허나 어떤 윤리의 경고에서 그런 것 처럼 율법들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적절하고 고풍적이라고 발견하는 섬세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쉬어 이의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들만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과의 언약 관계속으로 부른 온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이 명백하다. 마태복음은 이 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친다.

신명기

우리가 유대인의 가장 거룩한 본문은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쉼마이다 (6:4-5)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나고 유대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곧 바로 먼저 이 거룩한 본문으로 가서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 레위기 19:18 로 가서 그의 가장 큰 계명의 개념을 완성하도록 하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절들은 웨슬레가 성결을 사랑으로 정의하는데 그의 제일가는 원천이었다. 우리는 또한 신명기에서 내적 씻음의 새 상징인 “마음의 할례”의 개념을 발견한다.

10:16 과 30:6 를 참조하라.

이 책들을 읽고 적은 노트들에서 당신은 성결과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는가?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어떤 질문들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역사서

역사서들-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더 -에서 우리는 유대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영적승리의 위대한 은유가 되었는데, 이것은 가장 빈번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었을지라도 가끔 완전 성결이 체험과 동등시 되기도 했다. 허나 이 책들에서 우리는 또한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반항적인 불순종으로부터 언약을 어떻게 깨트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의의 경건한 대항자들의 실례들로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강조되어 있음을 본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시편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카이저에 의하면 “시편 책들은 구약에서 경건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 가능한 타입의 성품을 묘사해 준다”. 굴복, 개방, 하나님께 의존, 충성, 헌신 그리고 순종이 이 타입의 성품을 보여 준다.

시편 15, 29, 37, 51, 93, 110 을 보기로 하자. 당신이 읽고 성결과 관련하여 발견하는 특성들은 무엇인가?

예언서

예언자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이사야 6 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본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능의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상징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성결의 관계를 갖도록 부름받고 그의 용서와 깨끗케 하는 역사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로서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성장해 가는 자들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죄의 결과와 죄된 성품을 조사하는 선지자이다. 그는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애도한다. 허나 그는 율법이 단지 돌판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씌여짐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내적동기와 내적 능력이 있을 새 날을 소망한다.

에스겔은 소망의 취지를 메아리 친다.

요엘은 성령 강림에 대해 예언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오순절날에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에스겔 36:23-27 을 보기로 하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단원의 이 부분에서 어떤 질문들이나 의견들이 있는가?

강의: 설교학적 검토

(30 분)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설교 개요를 꺼내어 강의에 비추어 그것을 보도록 하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3-4 를 참조하라

각 학생은 이 마줄 기간 중 성결의 설교를 쓸 것을 강력히 천거한다. 마줄 전체가 설교 기술만 다룬 마줄이 있다. 그러나 그 마줄을 아직 듣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또 재고해 보기 위해 우리는 자료 3-4 를 볼 것이다. 에스 트레이시가 쓴 이 장은 레이 더닝과 닐 와이즈맨이 편집한 “성결 설교를 위한 자료들:

교사로서 클래스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3-4 를 철저히 검토하라. 당신은 본문에서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용된 과정에 집중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당신의 토론에서 당신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재 인쇄된 장의 설교 준비 단계들을 예증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라

당신은 이것을 위해 약 30 분 소요할 수 있다.

자료 3-4 를 토론한 후에 이 활동을 마감하고 단원을 끝마치도록 하라.

본문에서 설교로" 라는 제목으로 두권의 셋트로 된 설교자료들로 부터 재 인쇄된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성경본문으로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실례이다.

구약성경 설교개요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사용한 과정을 트레이시 박사가 묘사한 단계들과 비교해 보라. 다음 단원을 위한 당신의 과제물들 중 하나는 신약 성경본문에 기초하여 또 다른 하나의 설교 개요를 쓰는 것이다. 당신이 성경을 검토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단계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신약성경 설교개요를 준비하라.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를 본다. 당신은:

- “믿음의 유추”에 대한 주제들을 판명할 수 있는가?
- “믿음의 유추”를 구약 신학과 관련시킬 수 있는가?
- 구약성경에 나온 성결에 대한 중요한 귀절들을 밝힐 수 있는가?
- 본문을 설교로 옮기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밝힐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성결신학에 관한 신약성경 기초들을 볼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다음의 신약 본문들을 읽고 이용이 가능하면 주석책들을 참고하라: 마 5-7; 요 17; 롬 6-8; 고린도 전서 13; 갈 5:17-24; 빌 3:12-15; 골 1:22-23; 1 살전 5:22-23; 약 1-2; 요한 1 서.

상기 신약 본문들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설교 개요를 만들라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둠]

단원 4

신약 성경 기초들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05	설교 개요	소그룹	자료 4-1
0:30	신약 성경 기초들	강의 /토론	자료 4-2 자료 4-3 자료 4-4
1:1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Carver, Frank G. "Biblical Foundations for the 'Secondness'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2 (Fall 1987).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21-25/22-10.htm

Deasley, Alex. "[Entire Sanctification and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Perspectives on the Biblical View of the Relationship.](#)"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11-15/14-03.htm

Lennox, Stephen J. "[Biblical Interpretation, American Holiness Movement, 1875-1920.](#)"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Spring 199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3-1-02.htm

Lovell, Ora D. "The Present Possession of Perfection as Presented in First Joh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8 (Spring 1973).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8-4.htm

Mattke, Robert A.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s Related to the Work of Entire Sanctifica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5 (Spring 1970).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1-05/05-3.htm

Purkiser, W. T.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1, *The Biblical Foundation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Turner, George All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the Wesleyan Tradition."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4 (Spring 1979).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4-05.htm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단원 서론

(5 분)

책임

속제물을 돌려주고 모으라(설교 개요).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서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경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 신약성경에 나온 기록에 대한 주요 본문들을 밝히고
- “믿음의 유추”를 신약신학과 관련시키고
- 신약성경에 나온 성결의 개념에 대한 주요 본문들을 밝혀야 한다.

단원 본문

소그룹: 설교 개요

(25 분)

약 3 명의 그룹으로 클래스 구성원들을 나누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4-1 을 참조하라

여러분의 그룹에서 서로의 설교들을 주의해서 읽는다. 개요들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들을 적는다.

모두가 각 개요를 읽고 의견들을 말했으면 각 개요를 가지고 개요를 쓴 사람과 이야기 하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개요를 향상시키고 그 개요로 부터 설교를 쓰라.

시간을 지혜롭게 나눔으로 각 설교가 토론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개요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개요로 부터 설교 원고를 작성한다. 첫 원고 초안의 제출 마감은 단원 9 이고 최종 원고 초안의 제출마감은 단원 11 이다.

강의 /토론: 신약 성경기초들

(45 분)

성경적 해석은 가능한 사실 정보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다. 다른 전통들로부터 온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달리 해석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다른 점들이 신학의 비 본질적 요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신학의 근본적인 면들 이를테면 죄, 구원, 그리고 또한 성결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웨슬레 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큰 신학적 분쟁이 있다.

웨슬레 전통에서 온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웨슬레가 “전 기독교 정신”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에 대해 말한 대로 기꺼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의, 거룩, 성결, 완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신학의 고결함을 유지하는데는 절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믿음의 유추”의 바로 복판에 있는 주요한 렌즈로 그것에 의해 웨슬레는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 단원에서 간략히 언급한대로 당신이 원하면 웨슬레 성결의 강해 조경안에서 어떤 본문들이나 어떤 개념들을 해석하게 될 때 차이지는 점들이 있다.

이 점에 비추어서 아마 그러한 조경의 범위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잘 한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웨슬레 성결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교리를 성서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때 무엇에 대해 동감하는가?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학생용 교재 4-2 를 참조하라.

1. 크리스찬 삶은 하나님이 바로 세상 창조전에 계획하신 대로 성결을 향해 성장하는 삶이다. 이 생에서 우리의 목적과 운명은 성경에 죄와 계속적인 고투의 삶으로서 내세로 달아 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망없이 죄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고 우리의 성결이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 아니다.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의해 패배하고 맞아 자빠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 창조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만드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라고 부르시는가? 웨슬레 성결 해석가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르는데 헌신한 개인과 심지어 공동체의 삶속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의 위대한 낙관주의로 본다.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협력할 때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고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의는 실제적인 의미이지 단지 "귀여된 의" 가 아님을 믿는다. 만일 우리가 의로 귀여만 되었다면 우리는 은유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 가리워질 것인데, 마치 우리의 실제로 더러운 것을 가리는 흰 겉옷과 같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메세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안을 변화시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3. 한 때 한 초대교회교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크리스찬 생의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애매할 수 있다

우리가 애써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특성들을 들어 보자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As an example, the United Methodist denomination is fully Wesleyan, yet United Methodism does not in general embrace the doctrine of entire sanctification.

빌립보서 3:12 를 보라.

가장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거룩한 생활의 결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질을 띠므로 그는 계속 순종을 유지하고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첫 단원에서 제한된 것처럼 예수님도 성결은 죄없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현존이다. 사랑은 최고의 목표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예수님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속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총만을 실컷 맛 보면서” 사랑하게 된다.

4. 성결운동이라고 알려진 나사렛교회 전통의 일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두번 째 역사”를 위한 성경의 기초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야 한다. 성결운동에 대한 단원은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중대한 부분이 되는가를 보다 더 상세히 조사할 것이다. 지금은 성결단체 내에 서기 위해 사람은 그리스찬 삶속에서 두번째 중대한 변화를 확신해야 한다고만 말해 두자, 엄밀하게 말해서 웨슬레 주의자가 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들을 성결 전통의 일부로 밝히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번 째 체험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와 그것이 어떻게 일어 나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다. 그러나 성결해석가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그것의 실재를 확증한다.
5. 성결에는 동적인 요소가 있다. 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진행중이다. 이것을 판명하는 한가지 방법은 “당신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7:1 의 헬라어가 암시해 주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되었지만 아직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역설같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전해 주는 것은 그리스찬 삶속에 칭의와 완전성결의 지극히 중대한 체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날 까지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다시 다음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성결에 대한 가장 간략한 전반적 견해들을 제공한다.

학생용 교재 4-3 를 참조하라.

복음서

복음서들 안에서 우리는 바로 지침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삶의 길이 되는 예수님의 그의 삶의 산 방법의 실례를

발견하는데 마태가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같이 너희도 온전하라”(5: 48) 고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삶의 길에 부름 받았다. 신약성경에서 온전이라 말은 다른 방법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어근 에서 나온다. 이 말은 목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종점 혹은 극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암시한다. 때때로 그것은 성숙으로 번역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으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라-혹은 아마 목적으로 돌아 오라-는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예수님의 답변은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 전 존재로 사랑하고 (쉐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는 것이었다. 성경신학의 웨슬레 해석가들에 의하면 교제를 갖고,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다. 성결하라는 부름은 사랑하라는 부름이다. 산상 설교는 실천적 삶속에서 이 사랑 자체가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묘사이다.

마가는 누가와 요한이 하듯이 그의 복음서에서 강조를 덧붙인다. 마가는 “마음”이 모든 도덕적 혹은 윤리적 부패의 근원, 아니면 모든 선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관심을 둔다. 성결은 의로운 율법에 대한 외적 일치 그 이상이다. 누가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 처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는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제공한다. 누가는 특별히 기대밖의 사람을 예수님의 관심사의 맨 앞에 두기를 주장한 것 같은데, 곧 버림받은 자, 죄인, 외인, 여자, 가난한 자, 병자, 추방당한 자, 이방인들인데 바로 그가 돌볼만한 “가치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과 같은 중요한 본문들을 제공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강림과 그의 강림의 큰 역사를 본다. 성령이란 이름이 이 한권의 책의 첫장에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60 회 이상 나와 있다. 요한 웨슬레의 절친한 동료 요한 플레처는 완전성결의 체험을 사도행전 2 장에 기록된 성령세례와 연관시킨다. 나중에 아사 마한과 같은 성결의 인물들은 이 해석을 강화하고 보급했다. 하지만 현대 운동에 보편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오순절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역사를 거쳐 개인 신자들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순절과 성령세례를 교회 탄생을 의미하는 오로지 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어떤 성경주석가들이 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신생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떤분들은 그것을 그리스찬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에 대한 은유로 본다. 우리의 오순절 친구들은 그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는 수단으로 본다. 그리고 제시한 것 처럼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참으로 완전 성결체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징으로 본다.

이 마지막 해석을 고수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나중 부분에 나온 가이사랴, 사마리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소 오순절 체험들을 지적한다. 그것은 분명 그들 자신의 두번 째 은혜 체험의 역사를 묘사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위한 능력있는 은유가 되어 왔다. 사도행전에서 그 체험은 결코 홀로 따로의 체험이 아니었음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성결체험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언제나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쓴다.

바울의 로마서

성결은 이 서신의 모든 섬유조직을 통해 흐른다. 로마서는 단연 바울의 가장 “신학적”인 작품이다. 다시금 그것은 무수한 절들을 통해 그러한 신학을 깊이 다루어 우리의 이해를 더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여기서 오로지 몇가지 주제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

1. 그리스찬 생활은 도덕률 폐기론의 삶의 아니다.
2. 단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불순종의 선택보다 더 깊은 문제가 우리 자신안에 역사한다.
3. 우리를 구원하거나 성결케 하는데 율법의 무익.
4. 성령안에서의 생활은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다.
5. 이런 타입의 영적 생활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우리의 온 자신을 완전 결여됨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외에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5-8 장에서 당신은 무엇들이 중요한 절들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린도서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4-4 를 참조하라.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사랑과 의로운 삶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 우리의 잠재력을 성취하기는 소망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굳어진 현실 사이의

Read this passage.

갈등을 보여 준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소망없는 실패인들로 기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들을 정반대로 본다. 그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을 칭찬한다. 허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실제적 삶속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도전한다.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교회내에 충성의 갈등들이 있다. 그는 여기에 이런 혹은 저런 상황에서 거룩케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교인들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은 서로를 고소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통행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의 부름은 일관성이 있다. 그는 그들이 소망이 없고 그들은 항상 죄와 투쟁할 것이며 정말로 윤리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잠깐 시사하지 않는다.

아주 반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1 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성도이므로 거룩하라;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를 암시함으로 그들을 자극한다. 모든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는 또한 바울의 첫 서신에서 위대한 사랑장-13 장을 발견한다. 아마 바울의 가장 심오한 말은 그가 개인 및 공동체 삶의 약점에 격심한 주의를 한 가운데 왔을 것이다. 바울은 너무 고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맞지 않는 개념들을 갖고 있는 관념론자가 아니다. 아니 바울은 현실주의자로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삶을 바라보고 성결은 현실적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바울 서신들

우리는 갈라디아서 3 장과 5 장에서 기술된 성령안에 사는 삶을 발견하는데 이 삶은 “육체” 안에 사는 삶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집합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해준다. 그것은 또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결의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엡 3: 14-21.

빌립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귀중한 책이다. 바울은 또한 2 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위대한 초대 찬송을 인용한다. 3 장에서 바울은 바리새인처럼 완전을 향한 그의 자신의 노력의 무익함에 대해 분명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린다.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 진다.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에 대한 바로 그 목적에 관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한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1:22-23)는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웨슬레 성결운동에 결정적인 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23-24에서 발견된다. 그 동사의 시제는 하나님의 성결케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성결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하시는 그의 역사에 우리를 오로지 내어 맡기고 헌신하고 굴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새 언약에 적용된 구약성경이 다수의 상징들을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에 인용된 많은 상징들이 정결, 거룩, 성결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완전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

야고보서는 몇가지 주제들을 다룬다. 그는 유혹, 죄, 이중 마음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과 다음의 절로 요약될 수 있는 성격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실천적 지침을 허락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중에 돌아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1:27). 여기에 개인 및 사회의 성격이 필요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일서는 성결신학과 사랑으로 풍만하다. 그것은 웨슬레가 완전한 사랑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데 주로 의존한 책이다.

요한일서의 어떤 부분들/절들이 가장 통찰력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요한 일서가 성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돕는가?

토론 지도: 학생 반응

(10 분)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여러분이 읽고 노트한 것에서 여러분이 탐구하고 싶은 어떤 주제들이나 질의들이 있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를 본다. 당신은

- 신약성경에 나온 거룩에 대한 중요한 귀절들을 밝힐 수 있는가?
- “믿음의 유추”를 신약신학과 관련시킬 수 있는가?
- 신약성경에 나온 성결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귀절들을 밝힐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성결에 대한 웨슬레 이전의 역사적 기초들을 조사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명백한 기사”를 읽으라. 2-3 페이지의 독후감을 쓰라. 여러분은 이 단원의 숙제를 위해 이 문서의 반절을 읽고 다음 단원을 위해 반절을 읽을 것이다. 이 단원을 위한 여러분의 숙제물은 첫 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당신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임]

단원 5

전통: 웨슬레 이전 기초들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웨슬레 이전	강의	자료 5-1 자료 5-2 자료 5-3
1:10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Bassett, Paul, ed. *Great Holiness Classics*. Vol. 1, *Holiness Teaching: New Testament Times to Wesle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7.

Greathouse, William M. *From the Apostles to Wesley: Christian Perfec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9.

Bassett, Paul M.,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강의 서론

(10 분)

책임

몇명의 학생들을 호명하여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의 첫 반절을 읽은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게 한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서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 이전의 거룩과 성결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를
놓아 준 신학운동들을 밝히고
- 교부시대부터 18 세기에 걸쳐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단원 본문

강의: 웨슬레 이전의 기초들

(60 분)

성결 교리가 성경적 교리임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시초부터 기독교 정통의 면직물 속에 견고하게 짜여진 역사적 교리임을 안다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성결사상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강조를 둔 중대한 시기들과 사람들에게 대한 개관이 다음에 온다.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상 꽤 일찍부터 “동양”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이 보여 진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들은 더 커져서 마침내 1054년 전까지 동양 및 서양 기독교는 정식으로 로마 천주교와 동양 정통주의로 갈라져 있었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5-1 을 참조하라.

둘 사이의 선은 보통 헬라어를 말한 자와 라틴어를 말한 자에 따라서 그어졌다. 지리적으로 나누는 선은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통해 북 아프리카로 질주한다. 두 개의 정치 및 교회 썬터들은 서양의 로마와 동양의 콘스탄틴 노플인데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다

서양의 로마제국이 400년 대에 무너졌을 때에 암흑시대로 알려진 것으로 들어 갔다. 서양교회의 지도자들은 문화의 쇠퇴에 비추어서 교회 세력을 통해 일치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서양교회의 지도자들은 문화의 쇠퇴에 비추어서 교회 세력을 통해 일치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서양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것처럼 교황들은 그들의 힘에 있어 다음 500년동안에 다양하게 변했다.

그 동안에 동양 기독교의 절반인 콘스탄틴토폴의 교회와 교회 감독들은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 암흑시대는 그들을 완전히 빛나갔다. 그들은 계속 신학적 및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다. 1054년 결국 기독교 파탄은 신학적 및 정치적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명백하게 드러난 두 개의 신학적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 정교의 역할
- 서양교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동양교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니케아 신경에 추가 사항

신학적 방법

동양에서의 신학적 방법은 의식과 예배에 주의를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또한 금욕주의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보다 기도에 더 가치를 두었다. 서양에서는 교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논증과 조직적인 논법을 전개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양에서 극단 금욕주의 실시는 일부에 의해 정죄를 받았는데 “도타니즘”은 정결의 문제에 대한 그것의 지나친 관심때문에 이단으로 여겨졌다

신학적 인류학

일찌기 동양 신학자들은 인간을 아주 적극적인 면에 비추어 본다. 그들은 *imago Dei* 곧 하나님의 형상의 종대성을 강조하고 이생에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된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성숙한 장년으로가 아니라 어린이들로 창조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짐은 아주 동정적으로 보여진다. 서양에서 타락은 인간의 극적 파멸로 보여 진다. 아담은 원래 완전한 성숙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타락은 하나님이 형상을 파멸시키지 않았다면 심하게 상하게 하였다. 타락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은 이 생에서 심히 제한적이다.

죄

창조 및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동양의 이해에 비추어 죄론은 원래 인간의 “질병” 이나 “탈선”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 인간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생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성결이 강조된다. 서양의 사상가들에게 죄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 받아야 하는데 계속 용서받아야 하는 범죄로 정리된다. 그래서 칭의가 강조된다 .

기독교론

동양의 이레니우스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인간의 “재현” 혹은 “반복”의 종대성에 강조를 둔다. 그의 죽음은 인간 구원을 위한 특출한 사건이지만 그의 전체 삶이 구원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의 삶은 분명히 참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궁극적 모델이 된다. 서양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가 인간 죄를 위해 이루어 놓은 “대속”의 속죄에 강조를 둔다.

성령론

동양의 사람들은 성령이 인격체이지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삼위일체의 계급을 조성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서양의 사람들은 성령의 개체성을 경시하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신경에 근본적으로 성령을 아주 하위에 둔 글귀를 첨가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이 결국 나뉘어진 이유들 중의 하나였는데 곧 그것은 피리오크 논쟁으로 알려졌다.

삼위일체

동양은 “본질적 삼위일체” 곧 신경의 일치와 상호 결합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양은 “경륜적 삼위일체” 곧 삼위일체의 각 개인 위격의 독특한 기능들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원론

동양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강조된다.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동적 협력이다. 이것은 “협력설”로 알려졌다. 또한 성결을 크게 강조하였는데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견신론”, “신격론”, “신성론”으로 알려진 교회와 역시 관계된다.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심지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행위이다. 이것은 “단독론”으로 알려진다. 성결의 개념은 서양에서 아주 달리 정리되는데, 그것은 이 생에서 크리스찬의 성장에 대해 낙관주의를 조금 고수했다.

동양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헤르메스의 쉐퍼드, 이레니우스, 율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크리소스툼, 슈도-마카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바실, 에프라렘, 사이러스, 서양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터틀리안, 사리프리안, 제롬, 앰브로스, 어거스틴.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5-2 를 참조하라.

동양 신학자들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발견한다.

-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반복”으로 알려진 속죄론에 대한 이해
-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력한 교리
- 기독교 윤리와 인격형성에 대한 강력한 교리
- 성결과 사랑의 명확한 관계
- 마음의 정결과 완전성에 대한 기대 가운데 성령역사에 대한 뚜렷한 강조.

아마 웨슬레와 그의 신학 후계자들이 동양의 기독교 신학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쉬울 것이다. 앞서 기술한 몇가지 세부적인 것-아담과 하와가 어린이들로 창조된 것은 웨슬레에 의해 강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양의 전반적인 어조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협력하는 개인의 현재의 삶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낙관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조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고 그의 위대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될 수 있다. 서양을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분은 어거스틴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대단한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의 전 신학의 진로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동양의 자료들에 대한 웨슬레의 독서는 그를 신학의 낙관주의 편에 정면으로 대하게 했는데 곧 그가 그의 감리교 추종자들에게 새 피조물과 성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 앞에 살아 나아 오는 것을 본 낙관주의였다. 성결운동은 다음 세기에서 보다 더 열띤 낙관주의가 된다. 이 큰 기대의 뿌리는 초대교회에서 발견된다.

중세기에서 웨슬레까지

성경상의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유력한 원천은 동양신학자들이었지만, 성결의 아이디어가 서양에서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우리는 또한 아주 귀중한 통찰력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서양의 현저한 인물들과 운동들의 몇가지를 아래 드러내고자 한다.

클레어바의 버나드 (-1153)

서양이 암흑시대로부터 출현함에 따라우리는 지적 자극과 성취의 상승을 본다. 우리는 또한 수도생활의 관심이 새롭게 됨을 본다. 버나드는 새 시도 수도회의 창시자였다. 그는 다른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알려져 있지만 성결의 의미를 가진 깊은 영성을 드러낸 것은 그의 경건시간의 작품들이다.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의 깊이를 칭송한다. 바울 바셋의 말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착수자요, 지탱자며 기독교 사랑의 목표라고 한 버나드의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버나드에게 새로운 것은 (어거스틴 이후 그것이 누락되었거나 잠잠한 것에 한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학생용 교재에 나온 자료 5-3 를 참조하라.

Paul M. Bassett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121-22.*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이 생에서 완전해 질 수 있다는 기대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바울 바셋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토마스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의 세계를 서로 반대 위치에 두거나 혹은 서로 대립되게 하고 단절되게 하는 어떤 생각이든지 그가 반대하는 것이다. 토마스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 분리는 죄의 결과이지 본성의 결과가 아니다.

토마스 자신이 의미한 것 처럼 우리의 미덕의 성향은 완전히 파멸될 수 없다. 이것은 죄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웨슬레 자신의 이해에 중대하다. 토라스로부터 웨슬레는 또한 선행의 은혜의 교리와 의지적인 행위의 죄와 완전의 의미에 대해 통찰력을 얻는다.

Exploring, 2: 129.

개혁이후의 카톨릭 신비주의

프랜코이스 디 세일즈 (1567-1622)

프랜코이스 페넬론 (1651-1715)

마담 기이온 (1648-1717)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웨슬레는 내적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완전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혜와 기도 그리고 고독의 구체적인 방법을 그의 자신의 이해에 짜 넣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다. 첫째, 그는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찬 삶의 제일 목표가 아님을 믿었다. 둘째, 마찬가지로 그는 그들의 정적주의로 알려진 것 곧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대행위라 하여 실지로 거절하는 경향성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모라비안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흥미롭게도 일부학자들은 마담 기이온의 신비주의와 19 세기의성결운동을 연결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포베 파머는 이제 신비주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파머가 그녀의 좋은 친구 토마스 어판의 제안을 통해 기이온의 글을 읽었는지 모른다.

개혁 경건주의

조한 안트 (1555-1621)

필립 스펠너 (1635-1705)

경건주의는 원래 독일 개신교 내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첫 개혁자들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이후 교리의 완고함에 비추어 개신교 단체 내에 경건행위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적 삶의내적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 필립 스펠너는 중대한 경건주의 교과서 (피아 데시데리아) 를 썼는데 그것은 참 기독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방법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또한 기도와 성경독서의 친근 집단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과 성경의 내적 역사를 강조했다. 경건주의의 한 형태는 모라비안 주의였는데, 그것은 웨슬레 자신의 영적 성장에 극히 중요하였다. .

토론 지도: 학생 반응

(15 분)

여러분은 무엇을 동양사상의 강점으로 보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동양사상의 약점으로 보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서양사상의 강점으로 보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서양사상의 약점으로 보는가?

여러분은 이 단원에 관해 그외 어떤 질문들이나 견해들이 있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웨슬레 이전의 기록과 성결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놓은 신학운동들을 밝힐 수 있는가?
- 교부 시대부터 18 세기까지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요한 웨슬레의 교리를 조사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의 마지막 절반인 자료 5-4 를 읽으라.

지난 단원으로부터 여러분의 반응을 통합시키면서 이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4-5 페이지 쓰라.

웨슬레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는 포베 파머 저 *성결의 길을 읽기* 시작하라 (이 책의 약 절반).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둠]

단원 6

전통 : 웨슬레의 그리스도의 완전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강의 / 토론	자료 6-1 자료 6-2 자료 6-3
0:55	그리스도인 완전의 명백한 기사	소그룹들	자료 6-4 숙제
1:25	단원 결말	검토/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Bassett, Paul M.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Maddox, Randy.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4.

단원 서론

(10 분)

책임

각 학생을 호명하여 “성결의 방법”을 읽고 그들이 택한 한 중대한 아이디어를 내 놓게 한다.

숙제물을 다시 돌려 준다.
당신은 토론 시간 후에 숙제물들을 거둔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웨슬레의 결론들을 밝히고
- 웨슬레 사상의 발전적 성격을 이해하고
- 다음의 용어들에 대한 웨슬레의 정의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성결; *via salutis*; 의도의 정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단원 본문

강의 :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45 분)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6-1 을
참조하라

Cell,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35), 347.

“웨슬레의 “기독교 생활 윤리의 재건은 개신교의 은혜의 윤리와 천주교의 성결의 윤리를 원형 그대로 독특하게 종합한 것이다”. 조지 크롬트셀의 이 말의 의미한 바는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성결은 경건인이 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어 왔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것의 근원으로 강조되었다. 그것은 개신교의 개혁이 일어 났을 때도 계속 강조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의 안건의 일부는 “오직 믿음”으로 알려진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곧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그의 성공회와 모리비안 교회의 영향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은 기독교 생활 곧 성결을 겨냥하고 오직 믿음을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혁자들에 의해 칭의의 교리와 성결교리에 적용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성결될 수 있다. 웨슬레의 온 전기는 아마 그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레는 1703 년에 성공회의 목사관에서 태어 났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발육과정에 육체적, 지적, 영적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녀가 죽을 때 까지 신학문제들에 관해 그의 1 차적인 서신 왕래자들중의 한 사람이었다. 요한의 아버지 사무엘은 교리와 경건의 원천인 기독교 역사에 풍부한 지식을 얻게 했다.

요한이 옥스포드에 갔을 때 그는 그의 성결에 대한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의 형제 찰스가 만든 소위 옥스포드 성결클럽이라 부르는 책임그룹의 가입에 가담했다. 그의 자신의 생활 안건의 중요한 부분이 이 그룹에서 일어 났다. 성결의 추구는 항상 가난한 자와 핍절한 자를 향한 사회적 행동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개인의 경건과 연구가 아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조지아에 갔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삶의 부족을 발견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런던으로 돌아 갔을 때 그는 울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모리비안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1738 년의 이 중대한 사건 전에 그가 잘 알 수 없는 그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체험했다.

Works, 7:204-5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6-2 를 참조하라.

이 때 부터 웨슬레는 순회 설교자가 되고 믿음에 의해 칭의와 성결을 믿는 운동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리교 들에게] 완전히 보여 주셨다. 한편 그들은 자유하고 완전한 현대의 칭의의 교리와 다른 한편 마음과 삶의 완전 성결이 교리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유지한다; 신비주의자 만큼 내적 거룩에,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만큼 외적 거룩함에 집요한다”

흥미롭게도 1738 년 후에 웨슬레는 그가 1738 년 전에 읽은 책의 저자들로서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준 세 저자들을 밝힌다; 1725 년에 그는 그의 안수를 준비하였고 다음의 분들과 맞섰다:

- 토마스 아퀴나스(1379-1471)는 고전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를 쓴 독일 수도사였다.
- 제레미 테일러 (1689-1761)는 옥스포드에서 동료였고 테일러의 “거룩한 생사”의 규칙과 시행”에서 많이 수집한 찰스 웨슬레 기관의 목회자였다.
- 윌리엄 로 (1686-1761)는 웨슬레가 서신 교환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헌신과 거룩한 생활의 심각한 부름”이란 책을 함께 쓴 분이다.

이 세분의 “실천 신비주의자들”로 부터 그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와 관계된 세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1.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마음의 의도를 정화시킨다.
2.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은 거룩한 삶에 중요하다.
3.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삶의 결정적이고 표준적인 것이다.

이 세 아이디어는 수년을 거쳐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를 일관적으로 특징지어 주었을 것이다.

*Maddox, Responsible Grace, 181.
See 180-87.*

1741년에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설교를 썼다. 여기에 그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없는 방법들을 똑똑히 설명한다. 하지만 소극적인 면으로 웨슬레는 크리스찬들이 성숙하지만 절대 완전 이를테면 전지, 무 오류, 전능과 계속 한정적이고 그[녀]의 판단은 아주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녀]의 행동들은 때때로 (도덕과는 관계 없는) 현재 인간 상태의 허약성들에 의해 한정적이다. 크리스찬이 이 생에서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기대하지 않아야 함을 이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41년 여기에 적극적인 면으로 웨슬레는 심지어 새로 태어난 크리스찬들이라도 외적 죄를 범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악한 생각들과 내적 성질로 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달리 말해서 “웨슬레는 신생은 외적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모든 내적 죄로부터 더 구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 20년간 웨슬레 사상을 특징지어 주었을 것이다.

1761년에 웨슬레는 “완전에 대하여”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설교를 썼다, 여기서 그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사랑은 내적 및 외적 거룩을 완전케 한다고 강조한다. 이 설교 외에 1760년대는 웨슬레가 성결에 대한 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로 하는 자신을 발견한 때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런던 협회에서 그것의 지도자들인 토마스 맥스필드와 조지 벨은 완전은 더 이상의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천사의 완전”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혜안에 성령의 필요나 심지어 그 사건들이 일어난 성령의 증거를 과소 평가하였다. 그들은 “나는 믿는다”는 말로 이 절대적인 완전은 완성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들은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성결된 자들은 종말론적 구원을 볼 것을 의미했다. 웨슬레는 재빨리 그들을 반격했다. 이 사건후에 웨슬레는 현재 완전 성결의 체험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 전후의 점차적인 성장과 진보적인 성결에 대한 힘찬 강조를 통합하고 균형있게 하는데 보다 더 주의했다.

다음의 인용들은 이 균형을 입증해 준다: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둘째, 하나님이 이행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Works, 6:52-53.

셋째,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시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신이다. 그런데 왜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에게 한 순간이 천년과 같지 않은가? 그는 그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실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가 영예롭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의 가치와 적합성을 원하시거나 기다리실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결시킬 수 있으며 또 기꺼이 원하시며 한가지 더 첨가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당신은 당신 모습 그대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신 모습 그대로하면 그것을 지금 기대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그것을 당신 모습 그대로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대하라. 그것들 중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들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를 허용하는 것은 그것들 모두를 허용하는 것이다.

Works, 11:402-3.

그리고 [우리는]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나태한 무활동이 아니라 단호한 보편적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방심하지 않고 수고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심자가 매일 지므로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모든 의식에 친밀히 참여함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얻는 (아니 그뿐 아니라 아니면 그것이 얻어질 때 곧 심지어 그가 가장 많은 양의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간직하겠다)는 꿈을 꾸다면 그는 그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제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든 열심을 내어 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레가 정의한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다른 아닌 완전한 사랑인데, 그것은 마음에 풍성하고 그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깨끗케 한다. 성결 혹은 완전한 사랑이 크리스찬에게 들어 오는 방편을 웨슬레는 순간적이고도 점차적인 사건으로 본다.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로 나서 죽을 때 까지 발달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널리 사랑의 보다 깊은 체험이 흐를 때 "완전"에 이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는 죄에 대해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6-3 을 참조하라.

1976년에 웨슬레는 그가 1725년부터 1765년에 이르러 믿고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분명한 기사"를 출판했다. 웨슬레는 그 자신의 신학발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1765년에 믿었던 바를 항상 믿었던 것처럼 그의 사례를 발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기사"에서 그것이 출판된 후에도 변화를 부인하지 않는 웨슬레의 성숙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재현할 그의 믿음의 요약을 제공해 준다.

1. 완전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거듭해서 언급되어 있다.
2. 그것은 칭의 만큼 이른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칭의의 사람들은 “완전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히 6:1)
3. 그것은 죽음 만큼 이른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바울은 완전하게 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빌 3:5).
4.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절대적 완전은 사람에게도 아니고 천사들에게도 아니며 하나님께만 속한다.
5. 그것은 사람을 무오류하게 만들지 않는다: 몸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무오류할 수 없다.
6. 그것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 그 용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7. 그것은 “완전한 사랑” (요일 4:18)이다. 이것은 그것의 본질이다; 그것의 기쁨들, 혹은 떨 수 없는 열매들은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살전 5:16 이하).
8. 그것은 향상될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드러 누워있거나 증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완전해진 사람은 그전보다 은혜안에서 더 신속히 성장할 수 있다.
9.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수 많은 실례들을 갖고 있다.
10. 그것 전후에 부단한 점차적인 작업이 있다.
11. 그러나 그것 자체는 순간적인가 혹은 아닌가? 사람이 죽을 때 순간을 감지한다는 것은 가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언제이고 죄가 중지되면 그 존재의 마지막 순간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첫 순간이 있음에 틀림없다.

소그룹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분명한 기사

(30 분)

클래스를 각 3 명의 그룹들로 나눈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6-4 를 참조하라

그룹들이 클래스에 보고할 수 있도록 5-10 분 정도 허용하라

숙제를 거두라

여러분의 그룹에서 웨슬레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명백한 기사”를 읽고 각각 쓴 독후감들을 읽는다.

독후감을 논평하고 토론한다. 서로 자기들이 진술한 것에 대해 변호할 수 있도록 도전한다.

적어도 여러분 중의 3 명이 동의하고 이 작품의 주된 의의가 있는 세개의 주요 진술/아이디어를 적는다. 클래스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으려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레의 결론들을 밝힐 수 있는가?
- 웨슬레 사상의 발전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다음의 용어들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 성결; 오직 믿음; 의도의 정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성결 운동의 신학을 조사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포베 파머가 쓴 *성결의 길* 읽는 것을 마치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4 페이지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단원 7

전통/성결 운동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미국 성결운동	강의 /토론	자료 7-1—7-5
1:05	성결의 방법	소그룹들	숙제
1:25	단원 결론	숙제 검토,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Bassett, Paul M. and William M. Greathouse. *Exploring Christian Holiness. Vol. 2, The Historical Development.*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5.

Coppedge, Allan. "Entire Sanctification in Early American Methodism: 1812-1835."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3 (Spring 1978).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11-15/13-3.html

Dayton, Donald W. "Asa Mahan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Holiness Theolog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9 (Spring 1974).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9-7.htm

_____.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1976.

Dieter, Melvin E. "The Development of Holiness Theolog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 (Spring 1985).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16-20/20-05.htm

Reasoner, Victor P.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s Paradigm Shift Concerning Pentecos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Fall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1-2-7.htm

단원 서론

(10 분)

책임

*몇명의 학생을 호명하여 웨슬레
잡지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을 나누게
한다.*

*숙제물을 다시 돌려 준다.
당신은 소그룹 시간 끝에 숙제물을
거둔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미국 성결운동의 뿌리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19 세기 성결교단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웨슬레 신학과 미국 부흥운동을 명확히 종합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운동과 사회 개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원 본문

강의/토론 미국 성결운동

(55 분)

미국의 감리교회는 혁명 전쟁동안 웨슬레가 미국으로부터 성공회 제사장들이 많이 나온 점에 비추어 성공회 목사 대신 감리교 목사로 안수받게 한 1784년에 창설되었다. 먼저 이 미국 감리교도들은 사람과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 지극히 충성되었다. 그런 한 세대동안 “아버지”란 말이 웨슬레를 가리킬 때는 “창설자”로 변했다.

점차적으로 미국의 감리교도들은 그들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교회적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문화적 변화였다. 미국 감리교가 받아들인 미국 풍조가 있었다. 이것은 웨슬레 신학이 명확히 정립되는 방법을 변경시켰을 것이다. 교리를 등한시 하지 않았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7-1을 참조하라.

나중에 미국 성결운동으로 알려진 것의 시초는 감리교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 착수되었다. 초기 미국 감리교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를 등한시 하지 않았다.

미국의 감리교 새교역자들의 교육을 책임 맡았던 나단 뱅스는 교리를 항상 앞 세웠다. 학자들은 디모데 메릿이 편집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지침서”를 시작하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성결운동의 전에 아주 중요하였다. 세기를 통해 그 운동은 선교사업과, 부흥회, 캠프 모임, 회합, 대회들을 통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퍼졌다.

그것의 신학은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와 미국의 부흥운동을 독특하게 종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열띤 낙관주의를 입증해 주는데 그것은 오로지 은혜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고수하는 자들의 생각에서 더 해갔다. 유토피아적 이념의 형태는 또한 이런 사회구조의 특징이다. 미국 꿈의 개념들, 곧 미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미국 국경의 소망, 이모든 것이 미국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감리교는 완전히 이런 형태의 낙관주의를 받아 들였다.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형태는 또한 주목을 받을 만 하다. 신앙 부흥 운동은 오래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개종하는 순간을 요구해 왔지만 그것은 완전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아이디어와 결부시킬 때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부흥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 헌신하는 순간으로 부름을 받는데 마음의 씻음과 오순절의 권능의 결과를 가져 온다.

중요 인물들과 장소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7-2 를
참조하라.

포베 파머

포베 파머는 그 운동의 교모라 불리워 왔다. 포베 워롤은 미국 본보기의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 났다. 그녀의 아버지 헨리 워롤은 미국의 이상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독립 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이동했다. 헨리 워롤은 역시 아주 돈독한 헌신된 감리교인인 도르디아 우이드와 결혼했다. 그들은 15 명의 자녀들을 수잔나 웨슬레와 비슷하게 가정의 경건 패턴을 따라 기르려고 했는데 그들 중 8 명만 생존하여 장년이 되었다. 포베 워롤은 겨우 초급 중학교 과정 정도의 교육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의 문학의 자질 양성은 그녀의 후년에 그녀가 쓴 책들, 소책자들, 기사들, 그리고 시문학들이 그녀로 하여금 수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지게 함으로 매우 귀중하였다.

19 세대 포베 워롤은 뉴욕시의 의사 월터 파머와 결혼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제도 전역의 캠페인들과 같은 그들 자신의 기독교 운동들과 출판사를 돕는 것은 파머 가정 경제상황 과 직결되었다. 포베는 그녀의 신앙적 비전을 아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 아주 개인적인 잔혹한 비극들, 곧 세 자녀들의 죽음은 1837 년에 신앙 체험 (완전 성결)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포베 파머로 하여금 신앙 직업에 들어가게 했고 차례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운동을 시작했고, 오늘날 그녀를 그들의 교모라 여기는 여러 교단들을 탄생케했다.

그녀의 자매 사라 랭크 포드와 함께 파머는 그녀의 집에서 가진 유명한 “화요일 모임”을 인도했는데 가끔 성결운동의 탄생지라고 여겼고 그것은 그녀의 지도하에 혼성 모임이었다. 그녀는 많은 책과 소책자를 썼다; 그녀는 세기의 가장 영향력을 미친 [메릿이 시작한] 성결잡지를 편집하였다; 그녀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시작했고, 결국 여성들의 자선사업을 평범하게 만든 신학규범을 내세운 자로 알려 진다; 그녀는 감리교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녀는 관록있고 찰스 피니 자신의 인기를 끈 부흥운동가였다.

그녀의 전도 사역하에 이만 오천명이 개종했고 수천명이

성결되었다. 여러 면에서 포베 파머는 “전형적인” 19 세기 중반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가정의 영역에 묶여있지 않았다.

감리교 설교를 통해 전달된 복잡성 때문에 수난적 체험에 이르는데 그녀 자신의 실망은 그녀에게 큰 자극을 주어 평신도에게 미칠 수 있는 교리를 만들게 했다. 그녀는 아마 “제단 언약”으로 알려진 세 단계의 공식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잘 알려졌을 것이다.

1. 완전 성결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2. 그 다음에 그[녀]는 “제단이 그 선물을 성결케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3. 개인은 그 체험을 증거해야 한다.

이 제단 어법은 성결에 대한 복잡하고 번잡한 추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확신을 주는 “보다 간결한 방법”으로 바꾸어 놓았다. 많은 성결운동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 뿐만 아니라 파머 자신도 계속 감리교도로 남아 있었다.

오벌린 대학

19 세기의 부흥 칼빈주의는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서 전통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만났다. 오벌린은 이전 직결되었적 열정과사건들과 관련하여 1834 년에 창립되었다. 노예 폐지론이 미국 전역에 커져가는 관심이었는데 가끔 종교적 열정과 직결되었다.

신시내티에 있는 레인신학교는 노예문제에 대해 깊이 논쟁을 한 장소가 되었다. 학장 라이먼 버처는 사회개혁안을 세웠다. 버처는 점차적 노예 폐지를 믿었지만 그는 또한 흑인들을 학교에 받아 들였다. 데오도 웰드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보다 근본적인 노예 폐지의 행동을 위해 노력했는데 신학교 밖에서 흑인들과 어울리면서 흑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

이것은 시민들을 날카롭게 했는데 그들은 이사회를 조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노예 폐지론자의 감상적인 삶을 금지하고 노예제도에 대해 교실에서나 교수진의 모든 토론을 잠잠케 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에 대한 항의로 사십명의 학생들이 탈퇴하였다. 그 동안에 학교는 오벌린 학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그것의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7-3 를 참조하라.

개혁안과 인간 동등성에 대한 그것의 믿음이 명확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을 후원한 레인의 한 이사인 에이사 마한을 교섭하였다. 그는 초대 학장으로 올 것을 동의하였다. 레인의 학생들 뿐 아니고 첫 해에 거의 300 명이 다른 분들이 따랐다. 오벌린은 흑인들과 여자들을 받아들였다.

오벌린 신학은 그것의 사회적 안건과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위대한 부흥운동가이자 조직 신학교수인 찰스 피니와 마한과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와 대영제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부흥운동 주제인 완전 성결주의를 기울였다.

완전성결은 중생이후 두번째 위기의 체험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웨슬레 양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원죄를 “근절하거나” 혹은 “육성”과 “죄로 기울어지는 것”을 소멸시킴으로서 완전히 성결된 사람으로 성결의 삶 혹은 고결한 삶에 의미심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다. 피니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와 감리고 사이의 필요한 관계를 거절하고 “신신학” 혹은 “신칼빈주의” 로 알려진 칼빈주의와 성결을 새로 종합하여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다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단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았다. 이 신학은 성결을 통해 올 수 있는 개인적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해 철저한 낙관주의이다. 피니와 마한 이후 오벌린의 근본주의의 기울어짐은 19 세기의 완전주의와는 멀리 보다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으로 되돌아 간 것과 직접 관계된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다.

케스웍과 진압론

결국 영국 케스웍 장소 때문에 알려지게 된 신학자세의 첫 대회 1873 년에 열렸다. 1875 년에 이 대회는 그의 성공회 신부의 초청으로 케스웍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것의 역사적 및 신학적 의의는 19 세기 후기의 감리교 연루 교회들이 주장한 완전성결 교리의 재 해석과 그 관계에서 발견된다.

감리교 완전주의에서 발견되는 것 처럼 죄의 “근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케스웍은 “보다 그리스도인 삶”을 강조한 로버트 스리스 부부와 더블류 이 보드맨과 같은 웨슬레교가 아닌 인물들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웨슬레 교도들 같이 칼빈주의의 케스웍 교도들은 완전 헌신의 특유의 순간을 강조하였지만 그들은 옛 성품의 힘이 씻겨져 버린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임재로 *반격을 당한다*는 그들의 믿음에서 달랐다.

그 운동은 디 엘 무디와 빌리 그래함 부흥운동,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위튼 대학, 달라스 신학교와 연관이 되었다. 웨슬레교와 케스웁 교간의 협력시도가 일찌기 있었지만 케스웁 신학이 전천년설의 종말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자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것의 비평가들에 의하면 사회 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대회는 계속 매년 열렸고 세계 각처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성결운동은 이것을 “자매” 보다는 “사촌” 과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표현으로 고려한다.

여러분은 케스웁 신학을 따르는 어떤 분과 교제할 어떤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 체험은 어떠했는가? 적극적이었는가? 소극적이었는가?

신학 및 교회 발전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7-4 를 참조하라

우리는 이제 방금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미국 부흥운동을 종합한 신학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 새로운 미국 문화를 배경으로 웨슬레의 성결교리는 몇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재 교정되었다.

1. 성결신학과 부흥운동의 혼합은 완전 성결의 순간성에 대한 강조에서 명확히 보여 졌다. 사람들은 이제 부름을 받아 제단에 나가 체험을 구한다. 웨슬레는 그의 사람들에게 약간 수동적으로 체험을 기다리라고 주의를 주었다. 성결부흥 운동은 이제 체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체험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2. 운동은 또한 완전 성결과 “성령 세례”의 관계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 웨슬레를 완화시켰다. 사실 처음으로 이 관계를 사용한 분은 요한 웨슬레의 동료 요한 플레처였다. 아사마한은 19 세기에 그것의 지지자였다.
3. 완전성결과 성령세례를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그 교리를 신약성경의 오순절 이미지와 연결시킨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체험은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전이될 수 있는 체험이 되었다; 이 확신은 오는 세대들을

위해 그 교리가 성결운동에서 전파되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4. 성결을 오순절의 능력과 연결짓는 것은 세례 용어를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완전 성결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인간적 제한 혹은 여자들의 경우에서 처럼 심지어 문화의 기준도 넘어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5. 마침내 웨슬레가 그것을 이해한 것 처럼 19 세기의 성결교리의 형태는 정상에 이른 것과는 아주 멀리 완전 성결을 새 시작으로 강조했다. 사람이 그 체험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완전성결은 성숙을 향해 보다 신속히 진척을 할 수 있게 한다.
6. 성결운동은 또한 사회 개혁과 직접 연결되었다. 성결교회들은 낙관적인 권능 부여의 렌즈를 통해 일찌기 노예제도 폐지, 극기, 투표권, 여자 안수등과 연관되었다.

성결교리의 열정이 부흥회들과 캠프 모임들에서 두드러지게 되지 일부 감리교 평신도들은 불만을 품고 그들의 교회들에 돌아 갔다. 그 결과로 형성된 교단들은 “급진적 개혁주의자들”로 알려 졌는데, 완전 성결 체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감리교단에서 나온자들이다. 바로 이 역사에서 오순절 교단이 탄생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비슷할지라도 오순절 교단은 공식적으로 성결 전통 교회들과는 관계가 없다.

다음은 기독교 성결 연맹에 가입한 주요 자매교단들의 목록인데 기독교 성결 연맹은 1837 년에 오늘날 계속되는 완전성결의 멧세지를 선포하기 위해 창립된 협동 조직체이다.

- 그리스도 형제교회
- 기독교 연합 그리스도 교회
- 하나님의 교회 (앤더슨, 인디아나)
- 회중 감리교회
-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 북미 복음주의 교회
- 복음주의 친우 동맹교회
- 복음주의 감리교회

- 자유 감리교회
- 나사렛 교회
- 수구파 감리교회
- 구세군
- 웨슬레 교회

여러분 중 이 다른 성결교단에서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여러분의 체험은 어떠했는가?

반응을 허용하라.

다른 보다 작은 성결 그룹들이 있다. 보다 두드러진 교단들만 간략하게 조사해 볼 것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7-5 를 참조하라.

성결 교단들

자유 감리교회는 1860 년에 조직되었다. “자유”란 말은 그 당시의 두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자세들을 의미했다. 자유 감리교도들은 노예 폐지론자들이었으며 노예 제도를 확실히 반대했다. 그 당시 또다른 하나의 문제는 교회의 긴 의자들을 세 주고 팔며 따라서 가난한 자는 성전 뒤 벤치들에 앉게하는 만연된 행위였다. “자유”감리교도들은 무료 좌석을 요구했고 교회 사역을 돕기위해 좌석을 파는 아이디어를 거부하였다.

웨슬레 교회는 또한 노예 폐지론과 그 개혁에 그 뿌리를 두었다; 그것은 본래 웨슬레 감리교파라고 불리웠고 1840 년대 초기에 조직되었다. 오렌지 스카트는 그 교단의 창설자였다. 그는 열렬한 노예 폐지론자였고 영국 성공회가 노예 제도의 자세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분단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윌리엄과 캐더린 부스가 창설한 구세군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디자인된 성결교리와 사회 개혁에 대한 교단의 헌신은 명확하였다.

다니엘 워너에 의해 1881 년에 창설된 하나님의 교회 (앤더슨)는 명확한 성결의 메시지 외에 교단의 초기 전제들 중 하나는 반 교파, 반 교단의 자세였다. 워너는 이 신앙 때문에 국가 성결 장려협화와 분단 자세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협회에 보다 최근에 재가입하였는데 지금은 기독교 성결 연맹이라 불리운다. 성결 전통의 교회들 사이에는 강력한 우호관계가 있다. 나사렛 교회는 성결 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이다. 피니 브리스는 로스엔젤레스에서 가난한자에게

성결과 관련된 선교를 돕는데 임명받기를 원했던 감리교 목사였다. 그의 감독이 아직도 감리교 성공회내에 맴도는 성결 요소에 대해 아주 역겨워하고 임명하기를 거절했을 때 브리스는 그의 목사직에서 떠났다. 1895년에 그는 나사렛 교회라는 이름의 그룹을 시작했다. 그 이름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명백히 관련됨을 의미한다. 나사렛 교인들은 가난하고 버림 받은 자들에게 헌신했다. 그러나 브리스는 또한 완전 성결교리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1908년에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부터 비슷한 신학적 관심을 가진 여러 다른 그룹들이 나사렛교회와 합쳤다. 국가 성결협회의 초기 및 계속적인 후원자는 성결교리의 장려를 위해 이 교단을 다른 교단들과 연결시킨다.

소그룹들: 성결의 방법

(20 분)

클래스를 각 3명의 그룹들로 나누라

각 그룹들을 불러 그들의 진술문을 읽도록 하라.

숙제물을 거둔다.

당신의 그룹에서 포베 파머의 책에 대한 서로의 독후감을 읽는다.

여러분의 독후감들의 차이성과 유사성들을 토론한다.

그 책에 대한 당신의 그룹 평가를 요약하는 진술문을 정한다. 그것을 클래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하라.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미국 성결운동의 근원들을 밝힐 수 있는가?
- 그 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을 밝힐 수 있는가?
- 19 세기의 성결교단들을 밝힐 수 있는가?
- 웨슬레 신학과 미국 부흥운동을 종합하여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 그 운동을 사회 개혁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완전 성결의 본질을 살펴 볼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여러분의 설교 원고를 완전히 작성하라. 첫 원고 초안 마감은 단원 9 를 공부할 때 까지이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단원 8

합리론: 완전 성결의 본질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완전 성결의 본질	강의 / 토론	자료 8-1—8-4
1:0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숙제 검토,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Dieter, Melvin E.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87.

Dunning, H. Ray. *Grace, Faith, and Holiness: A Wesleyan Systematic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8, 478-504.

_____. *A Layman's Guide to Sanctifica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Part II.

Grider, J. Kenneth. *Entire Sanctification: The Distinctive Doctrine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0, chap. 3.

Staples, Rob L. "Sanctification and Selfhoo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Wesleyan Messag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7 (Spring 1972).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l/06-10/07-1.htm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302-36.

단원 서론

(10 분)

책임

몇명의 학생들을 호명하여 웨슬레 잡지를 읽고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게 한다.

숙제물을 다시 돌려 준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과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 까지 학생들은

- 철학의 영향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정의한다.
- 다음의 관점들, 곧 존재 목적, 목적론적, 상관론적 관점에서 성결을 관찰한다.
- 성결의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묘사한다.

단원 본문

강의/토론; 완전 성결의 본질

(60 분)

강의 시작을 위해 당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를 단계 함으로 그들이 저자의 정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토론을 허용하라. 게시판이나 오버헤드에 다른 아이디어들을 쓰라

다시 정의들을 씬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자료 페이지에 학생들이 내린 다른 정의들을 학생들로 첨가하도록 제의하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8-2 를 참조하라.

완전 성결의 정의

완전 성결을 정의하라.

이것은 신학자들이 체험의 본질이라고 불려온 것의 핵심-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상황구조에 의해 성결신학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것이다. 정의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그것은 단순하거나 혹은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답변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함은 기초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과 과정에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교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 기초로 활약할 것이다.

당신은 완전성결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여기 하나-오직 하나-가 있으니 시도해 보라: 완전 성결은 중생 이후의 두번째 위기적 체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체험인데 그 체험에서 하나님은 "육성" 혹은 "죄의 경향성"을 다루시므로 완전히 성결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결과 사랑의 삶 곧 승리의 고결한 삶 속에서 의미심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

요한 웨슬레는 이 체험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불렀다. 19 세기는 "두번째 축복" 혹은 "성령세례"라고 칭하는 것을 더 좋아 했다. 두 자료와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외적으로 고결한 사랑의 상징을 하게 하는 체험을 의미한다. 웨슬레에게 완전은 정밀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가끔 혼합된 정의들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놓친다. 철학의 간략한 토의가 아마 도움을 줄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 완전은 절대적 선 곧 하나님을 의미했다. 이것보다 덜 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절대적 선보다 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한다: 어떤 것-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 (그분)의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면 완전해 질 수 있다. 한 의자는 비록 그것이 굽혀 있고 흠집이 있다할지라도 거기에 앉은 사람을 떠 받칠 수 있는 의자이다. 흥미롭게도 칼빈주의자들은 플라톤에게 아주 많이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웨슬레는 어떤 점들에있어서는 플라톤적이지만 그는

완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다. 또한 웨슬레 주의내에는 역동적인 완전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성결 낙관주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함을 믿는다. 그러나 그 과업은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치 과업이 성취되거나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은 매 새로운 순간처럼 새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완전 성결 전 후에 성장하는 것처럼 또한 자란다. 완전 성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의 내적 충만에 대한 의미심장한 점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여정의 끝은 아니다.

완전 성결의 효과

반응을 허용하라.

그러나 완전 성결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일부 신학적 말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자.

완전 성결은 우리의 삶에 존재론적, 목적론적, 그리고 상관론적 효과가 있다.

존재론적 효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8-3 을 참조하라.

신학자들이 존재론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존재 연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 탐구에 있어 보다 추상적 의미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실천적으로 아주 관련적 의미, 곧 우리의 성결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다. 환언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전 단원들에서 이 질문들 중 일부를 다루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성결이 우리의 존재 혹은 본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비추어 성결을 이해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질문은 이렇다: 성결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웨슬레와 19 세기 성결운동 사이에 다른 색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웨슬레 성결신학은 하나님은 정말로 성결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의 성품을 새롭게 하심을 확증한다. 종종 죄는 “오로지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든가 혹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원래의 디자인은 선했다.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다음에 오는 세대가 원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직 타락 이후였다. 그러므로 학술적으로 죄는 인간상태의 이탈 곧 대단한 기형이다. 죄를 짓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 만이 아니다. 죄는 우리를 우리의 인간성으로 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그것에 보다 더 가깝지 못하게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기적 및 점진적 형태의 성결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품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아마 도움이 되는 은유는 암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우리의 원래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하고 암이 없었다. 그러나 암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침범함으로 몸은 병들게 된다; 몸은 아직도 몸이고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양이 손상된 몸이다. 그 사람의 몸이 그것의 원래 건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질병이 제거될 때이다.

그렇다면 암암리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어떤 설교는 성결이 우리를 초 인간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기대들을 세워줌을 암시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변화시키심과 우리의 성품의 회복을 통해 참으로 인간이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창조된 대로 다 되는 것인데 곧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자신들이다.

목적론적 효과

만일 “존재론”이 성결에 의해 변화-회복-된다면 우리의 “목적” 혹은 운명도 또한 변화된다. 성경의 일부 번역들은 헬라어 “텔로스”를 번역할 때 “완전”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정상, 성숙의 의미에서 완성

혹은 충만이다. 그것은 때때로 “끝”으로 번역되는데 때, 상황 혹은 성품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의도한 목적과 일치한 완성에 이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운명의 의미를 수반하는데 어떤 예정된 방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은혜에 자신들이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는 자들은 그들의 의도한 운명과 일치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교제는 영원하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에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다.

상관론적 효과

“관계성”에 대한 초점은 최신 시대 혹은 교회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존재하였다; 삼위일체의 성격을 띠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신 시대주의는 개인에게 그것의 주목을 집중한 계몽운동에 대해 중대한 비평을 제공한다. 고립된 자신을 상상하는 개인은 현실과는 전혀 부합 되지 않는 철저한 추상적 개념이라고 비평은 계속된다.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웨슬레 방식으로-말해서 이것은 인간은 관계를 말하지 않고는 생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계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적절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들 각자와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디자인 한 운명이다.

만일 죄가 여러가지 형태의 사랑이 없는 것 혹은 원하는대로 “존재의 인간”을 통해 이 관계들이 일그러진 것이라면 성결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목적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우리의 관계의 역량의 회복을 의미한다. 웨슬레에게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성결은 적극적인 참여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웨슬레 신학자는 가끔 사용되는 “상관론적 신학자”로 부름한다는 것은 과언이다. 비슷하게 -밀드레드 뱅스가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개념에 대한 그녀의 연구에서 아주 적절히 보여준 것 처럼-성결과 사랑은 정의상 각기 독특하다 할지라도 실천적 삶속에서는 동의어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8-4 을
참조하라.

이 세가지 관점에서 성결을 조사해 봄으로 성결신학의 일부
계속되는 문제들이 다루어 진다.

성결신학의 일부 문제들

이것이 전부 포괄하는 명목은 아닐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세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우리의 성결교리를 “삼위 일체”로 만드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21 세기로 들어가면서 아주 분명했던
교회에서의 신학적 다양성에 비추어 신학자들은 모든 다른
신학해석을 위한 기초로서 삼위일체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1700 년간의 기독교 전통과
적절히 일치하기 위하여 성결신학 역시 삼위일체의 관점에
그 자체의 기초를 둔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성결 역사상 두 갈래-혹은
보다 엄밀히 세갈래-로 갈라지는 위험성에 너무 쉽게 빠져
왔는데 삼위일체의 첫째, 둘째, 셋째 위의 역사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 성령께서 신자를 성결케
한다는 것은 너무나 흔히 들어온 것 이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결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성령세례”의 용어가 완전 성결에 대한 은유로 사용될
때 일어난 실천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은유는
유익할 수있지만 만일 그것이 성결되지 않은 신자-우리가
우리의 다음 단원에서 보겠지만 사실 잘못 부르는 이름-는
그[녀]의 생애중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성결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따로
구별하는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구원과 성결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 일어 나는데, 그것은 이끄는 -선행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값없는
선물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사유할 때 적용되고 그 결과 똑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2. 상관론적 관점은 “지위”의 성결을 의미하는가?

20 세기의 마지막 4.4 분기에 성결교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은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 옹호되었다. 아주 많은 문화적 변화에 비추어 세기 중반기의 관점은 생명력이 없고 부합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교리를 다시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다. 흥미롭게도 웨슬레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은 이 새로운 관점의 옹호자들은 바로 성결을 시대에 맞게 하는 방편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웨슬레 자신이 상관론적 신학자임을 발견했다. 이 해석자들에게 웨슬레의 재발견은 성결 신학의 재 발견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21 세기 속으로 움직이면서 계속된다. 한 학자-사회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나사렛 신학교의 학장인 환 베네필-가 표현한대로 복음주의가 점차적으로 근본주의와 같아지는 시대에 우리의 웨슬레 성결 정체를 고수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전통”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 허나 오래된- 상관론적 관점은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표명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큰 저항을 만났다. 그들에게 퍼붓는 비난은 “지위의 성결”의 위험이었다. 지위의 성결은 가끔 칼빈주의 혹은 케스웁의 성결에 대한 이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원 2 에서 칼빈주의자에 대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 귀여움을 통해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 때문에 비록 우리 자신들은 아무런 의를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케스웁 주의자들은 칭의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성결에도 적용한다. 우리의 죄성을 억압하는 성령의 힘 외에 내적 씻음은 없다.

다른 한 편 웨슬레-성결 사상은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내적 역사를 통해 칭의의 순간에 시작하여 특별히 완전 성결 때에 의미심장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지로 의롭게 만드신다. “지위의 성결”은 하나님이 성결 혹은 의를 어떻게 신자에게 이루어 놓는가에 대한 칼빈주의와 억압주의의 이해를 정확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웨슬레 성결 전통의 보다 “상관론적”신학자들을 거스리는 “지위의 성결”의 비난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랑을 통해 표현된 성결의 상관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성결의 진행과 위기를 통해 오는 존재론적 및 신학적 변화를 부인하지 않는다.

2. “근절”이란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최근에 “근절”이란 말은 나사렛 장정에서 삭제되었다. 이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억압주의-케스워 주의의 신학으로부터 우리의 성결의 신학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었다. 확인해서 오랫동안 그 말은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중앙총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증인들은 신조에서 그 말을 제거하는데 반대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 말은 현재의 배경에서 그것의 관계성이 아니라면 그것의 힘을 잃었음에 분명하다.

그것이 왜 제거되었는가? 그 말의 주요 문제는 그것의 잘못된 의미들이다. 그것은 분명히 은유이다. 어떤 것을 근절하는 것은 거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잘라 내어버리는 수술과정의 의미에서 그것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죄를 본체 곧 우리에게서 제거되는 어떤 것으로 개념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죄가 본체로 생각된다면 만일 우리가 죄를 다시 지으면 그 은유의 뜻을 어떻게 통하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그 죄가 “수술하여” 다시 우리에게 이식되는가? 은유는 년센스가 된다.

그러나 깨끗케 씻음의 은유가 사용된다면 역시 아마 의학적 의미로 마치 상처가 완전히 씻겨 나가지만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다. 죄에 대한 이 개념은 실지로 죄를 “질병”으로 이해한 웨슬레에게 아주 잘 맞는다. 죄에 대해 분명 아주 믿음만한 선택인 상관론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역시 깨끗이 씻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치유받거나 “씻음 받는” 관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씻음의 아이디어는 보다 상관론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과장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은유이다. 어떤 은유들이 받아 들여지는 성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죄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를 저항하거나 혹은 그것에 협력하기를 중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토론 지도: 학생 반응

(15 분)

학생들의 반응과 토론을 허용하라.

당신이 들어온 설교/가르침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살펴 오고 있는 것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어떤 언어/은유/예증들이 당신의 이해를 돕는가?

완전 성결에 대해 말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다 잘할 수 있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철학적 영향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정의할 수 있는가?
- 다음의 관점들 곧, 존재론적, 목적론적, 그리고 상관론적 관점들에서 성결을 관찰할 수 있는가?
- 성결이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묘사할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성결의 “구조” 혹은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할 것이다.

여러분의 2005-2009 년 장정을 수업때 가지고 오시라.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여러분의 두 개요들 중 하나에 기초하여 완전한 설교 원고의 첫 초안을 완성하라. 두 사본을 클래스에 가져 오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단원 9

체험 : 완전 성결의 구조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설교 원고	소그룹들	숙제
0:35	체험: 구조	강의 / 토론	자료 9-1—9-3
1:15	추구인에게 설명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숙제 배당, 검토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Staples, Rob L. "Sanctification and Selfhood: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Wesleyan Messag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7 (Spring 1972).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06-10/07-1.htm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337-61.

단원 서론

(10 분)

책임

학생들에게 이 마진을 통해 그들의
매움의 체험에 대해 간단히 평하도록
요청하라

설교 원고의 첫 초안의 한 사본을
거두라.

학생들은 이 초안을 평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그들 자신의 성결체험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완전 성결 체험의 "구조"를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체험을 추구하는 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성결되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 성결의 진행과 위기의 기대들을 구별해야 한다.
- "순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원 본문

소그룹들 : 설교 원고

(25 분)

클래스를 각 2-3 명의 그룹들로 나누라.

여러분의 그룹에서 서로의 원고들을 읽는다. 여러분은 읽을 때 질문들이나 의견들을 적는다. 이것의 목적은 서로의 생각을 돕고 말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듣는 자가 말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내 놓은 의견들이나 제안들로부터와 내가 내 놓은 의견들과 제안들로 부터 여러분은 단원 11 이 마감인 최종 초안을 쓴다.

강의/토론 : 체험 / 구조

(40 분)

토론 질의: 몇명의 학생들로 그들 자신의 완전 성결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체험들의 유사성들과 차이점들의 분석을 시도하도록 하라.

신조를 이용함으로 완전성결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장정, 2005-2009.

제 10 절. 완전 성결

13. 완전 성결이란 중생한 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원죄 또는 타락성으로 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 지는 것이다. 완전 성결이라 성령 세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죄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체험을 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그의 생활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완전 성결은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며 완전한 헌신이 있을 후 믿음에 의해 순간적으로 얻어 진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마음의 정결”, “성령 세례”, “축복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같은 여러 용어로 불리며 각각 다른 면을 나타낸다.

14.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 뚜렷한 분별이 있음을 믿는다. 전자는 완전 성결의 결과로 이 순간적으로 얻어지며, 후자는 은혜속의 성장의 결과이요, 우리는 완전 성결의 은혜가 은혜안에서 성장하려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 충동은 의식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인격이나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 및 개선의 필수조건과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손상되고 은혜 자체가 좌절되어 마침내 잃어버려진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9-1 을 참조하라.

이 신조에는 이 교리가 우리의 교단을 독특하게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믿는다:

- **완전 성결은 중생 다음에 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사람을 그[녀]가 구원받을 때에 성취되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는 두번째 위기의 체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 **완전 성결은 우리를 악한 행위에서 자유케 한다**--웨슬레 성결신학과 개혁 전통의 차이는 우리는 죄의 세력이 깨지고, 씻어짐으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 **완전 성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특징이 있다** -- 모든 것 (우리 자신들, 우리 소유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것은 완전히 성결된 삶의 첫 요구조건이다.
- **완전 성결은 순종과 사랑의 결과를 가져 온다.** --웨슬레 성결 신학과 개혁 전통의 차이는 우리는 죄의 세력이 깨지고, 씻어짐으로 효과의 세력의 은혜에 의해 깨끗이 씻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통해 새로운 권능으로 충만되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바램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의 의도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사랑할 수 있는 참 능력으로 성장한다.
- **완전 성결은 제거되고 주어지는 요소를 갖고 있다**--달리 말해서 우리의 내적 죄의 경향성이 “제거 되지만 즉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심이 그전 어느 때 보다 더 깊고 더 널리 스며드는 방법으로 하신다. 웨슬레가 “사랑-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서 죄를 몰아 낸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것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 **완전성결은 오로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요한 웨슬레는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의 교리를 취하여 그것을 두번 째 은혜의 역사에 적용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결함을 받기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
- **완전 성결 다음에는 - 보통 -성령의 증거가 따른다--**
웨슬레의 확신론이라고도 알려진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준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완전성결의 체험에 적용해 왔다. 주목할만하게 웨슬레는 그의 생애중 나중에 영적이 아닌 요소들 -이를테면 아마 오늘날 용어로 정신병-때문에 사람이 이 내적 확신을 체험할 수 없음이 있을 법하다고 깨달았다.
- **완전 성결을 묘사하기 위해 몇가지 은유적 표현이 사용될 수있다--**이것은 다른 것 보다 더 나은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 없음을 암시한다. 역사의 어떤 기간들은 어떤 표현들을 다른 표현들보다 더 좋아했지만 표준이 될 만큼 더 우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은유적이다. 우리는 단원 12 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다.
- **완전 성결은 의도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계속 이어지는 성장을 요구한다--**단원 12 에서 말한 대로 완전 성결은 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지 않고 그 체험 후에 기다림이 끝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완전 성결의 체험에 의해 이전의 어떤 방해들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실린 기사가 말한대로 정결한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 받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잠재력을 부여하지만 이 잠재력을 점점 더 많이 실현시키는 것은 여전히 성숙의 성장 과정이다.
- **이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성장이다--**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닮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목표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맨 선두를 차지한 사랑과 더불어 이것은 성결한 삶의 명확하고 표준적인 것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9-2 를
참조하라.

당신 자신을위해 이 도표 사본이
필요하다.

체험의 구조

자료 9-2 에 나온 도표는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결 역사를 묘사해 준다.

이것은 가끔 *ordo salutis*, 혹은 구원의 순서라 불리운 것을 묘사한다. 일부 웨슬레 학자들은 보다 유동적 진행의 동력을 묘사하기 위해 *via salutis*, 혹은 구원의 방법을 더 좋아 한다. 날 때 부터 각 사람은 선행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끈다.

만일 사람이 이 은혜와 협력하면 결과로서 “회심” 혹은 구원의 순간이 자각, 확신, 회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이같은 순간에 성결의 과정은 우리가 **초기 성결**이라 부르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하나님은 의를 주시는데 그 의를 사람이 거룩케 되는 -현재 시제, 능동태 동사-방법으로 나누어 주신다.

하지만 이것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다. **진보적 성결**이 따른다. 이것은 점진적 성결, 은혜안에서 성장 혹은 심지어 영성이라 부를 수 있다. 성장이 있음에 따라 사람은 보다 더 깊은 헌신이 가능한 경지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 성결**의 순간이다. 이 보다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후 **진보적 성결**은 다시 이어진다. 성장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 영화라고도 알려진 **최종 성결**을 체험할 때 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완전 성결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우리는 웨슬레와 19 세기 관점의 일부 차이성을 보게 된다. 웨슬레 저서들의 전체 영역에 비추어 보면 웨슬레는 사실 완전 성결은 이 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감리교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웨슬레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것을 확증하였다. 그런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그의 충고는 “하나님이 제저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 자세를 의미하지 않았다—은혜의 수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되겠지만 아주 능동적인 생활 스타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 조절에 대한 웨슬레의 깊은 경의를 반영해 주는데 그것은 보통 기다리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19 세기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그 체험을 거의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기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제단 언약”이라고 알려진 공식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세가지 특유한 단계들을 포함했다.

- 첫째, 완전성결을 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제단”에 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 둘째,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온전히 성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케 하셨음을 절대 확신할 수 있다.
- 오로지 해야 남은 일은 체험을 증언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요구적이며” 지나친 생각의 일이고 합리주의적이며 심지어 “오로지 믿음”의 엄격한 타입의 해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공식”을 심하게 비판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비난이 이론적으로 약간의 신용을 얻을 수 있지만 이 패턴을 따른 사람들은 아주 가끔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한 차례로 비판을 받았다.

이 관점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19 세기의 추구하는 자들을 온건한 합리주의와 지나친 감정주의로 동시에 고발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인 것은 제단 언약이 완전 성결의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베 파머-처음 제단 언약의 관점을 명확히 말한 자-는 수년간 그 체험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왜냐하면 그 세기의 초반부에 그 주제에 대한 감리교의 가르침이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복잡 미묘” 했고 우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망되고 좌절한 체험의 그리움을 통해 그녀의 방법을 바꿈으로서 단순한 자들이 그녀가 가졌던 것 보다 “더 단순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다.

경고 사항들

19 세기의 이 새로운 신앙 부흥운동은 “취하는 자”에게 지금 가능한 구원과 완전 성결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체험을 발견하게 했지만 조만간 그것이 진리로 동결된 것 처럼 성결이 방법의 그 모델을 고쳐서 응결시켜야 할 위험성이 또한 존재함을 말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9-3 을 참조하라 .

항상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언어도 능가하는 영적 체험이 공식화 될 때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그 체험을 고정시키려는 위험이 있다. 결과로서 어떤 사람의 체험이 심지어 가장 사소한 점에서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체험은 불합리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완전 성결교리를 상자속에 두어도 안되며 우리의 정의된 한계 밖에 어떤 것이든 의심스럽다는 관념을 보급시켜서도 안된다.

- 어떤 분들에게 그 체험은 속삭임과 같이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같이 요란하다.
-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다음 단계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혼의 쓰라림이다.
- 어떤 분에게 그것은 그리스찬 삶가운데 일찍 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추구한지 수년간 후에 올 수 있다.
-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성결 전파의 응답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것의 설명을 결코 들어 보지도 못한채 하나님의 인도로 체험에 이를 수 있다.

완전 성결체험은 각 개인과 같이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대조시킨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끔 해로운 것이 된다. 물론 체험 그 자체의 특징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요구함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비판하도록 하는 표준을 세워 놓는 것이다.

우리는 웨슬레에 의해 주어진 완전 성결의 해석과 그의 미국 후계자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이 저자는 믿는다. 이 균형은 가끔 어떤 지나침을 막는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아 마땅한 한 분야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두번째 순간에 대한 질문?

완전 성결교리는 분명히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강조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상황과 새 천년대에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상황과 새 천년대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보다 심오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와 상징이 사용되어야 한다. 혼동케할 수 있는 교리를 파악하려하거나 비 현실적이라고 이해한 최근 많은 사람들의 궁지에 비추어 새로운 명확한 설명이 극도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려는 시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두번째의 극적인 순간을 *살* 강조함이 도움이 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들에 공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번째 순간”의 개념을 버리는 것은 우리 교단의 정체와 존재 목적에 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완전 성결의 명료도를 계속 동적이고 관계적이며 현실적이 되게 하고 사람에 따라 차이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해야 하지만 완전성결의 사건과 진보적 성결의 과정을 혼합하여 단일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성결교회가 의미한 것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을 덜 강조하도록 인도해 온 문제의 일부는 영성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를 보다 더 강조함으로 더 도움이 되게끔 다루어질 수 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를 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역사를 균형있고 건전하게 전파하는데 절대 중요하다.

토론 지도: 추구자에게 설명

(10 분)

질의 응답과 토론을 허용하라.

모든 사람이 보고 변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게시판이나 오베헤드에 적으라.

강의들은 성결을 공식에 제한하는 것을 막는데 주의한다. 학생들이 고정된 공식에 빠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해 두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허용하라.

사람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성결되는가? 오늘의 단원과 토론에 비추어 체험을 추구하는 자에게 현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성결되는가를 설명해 주라.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당신 자신의 성결의 체험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 완전 성결체험의 구조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가?
- 체험을 추구하는 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성결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성결의 진행과 위기의 기대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 “두번째 순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체험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계속하고 목적의 수단을 살펴 볼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성결케 하는 은혜 안에 성장”과 영성에 관해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하여 3 페이지의 수필을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le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단원 때 클래스에 여러분의 일지들을 가져와 이 마칠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얻은 일부 생각 (깨달음)과 통찰력을 나누도록 하라.

단원 10

체험: 목적을 위한 수단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학생 수필	소그룹들	숙제
0:30	체험: 목적을 위한 수단	강의/토론	자료 10-1 자료 10-2 자료 10-3
1:1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Maddox, Randy. "Reconnecting the Means to the End: A Wesleyan Prescription for the Holiness Movement."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1998).

Staples, Rob L. *Outward Sign and Inward Grac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1.

Dunning, H. Ray. *Grace, Faith, and Holiness: A Wesleyan Systematic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8, 539-65.

단원 서론

(10 분)

책임

학생들로 짝을 지어 서로 그들의 일지를 나누도록 한다

첫 설교초안을 아직 돌려 주지 않았다면 속제물을 돌려 준다.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이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교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판명한다.
- 영적 단련, 은혜안에 성장, 진보적 - 점차적- 성결 그리고 영성의 의미와 목적을 명백히 이해한다.

단원 본문

소그룹들: 학생 수필

(20 분)

클래스를 각 3-4 명의 학생 그룹들로 나누라.

이 시간 끝에 보고하도록 각 그룹에게 약 2 분간 허용하라

여러분의 그룹에서 각자의 수필을 읽는다. 제출된 여러 사고에 대해 토론한다. 서로 아이디어들과 진술들을 뒷받침하도록 도전한다.

강의/토론: 체험: 목적을 위한 수단

(45 분)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레

웨슬레의 성숙된 사고로 그는 감리교도들, 특별히 감리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완전 성결과 진보적 성결을 다 강조하도록 강력히 권면한다. 어느 것보다 다른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나사렛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중요한 균형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다.

완전 성결의 체험이 너무 강조되어 도역율을 따를 필요성에 대한 강조외에 우리의 성결에 있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때 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크리스찬 여정에있어 매일매일의 행함에 새롭게 관심을 두어 왔다. 이것은 웨슬레 전통에서의 "은혜의 수단"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보다 일반적으로 "영성"의 주제에 대한 큰 관심에서 두가지 다 나왔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0-1 을 참조하라.

Wesley, Works (Jackson). 5: 187.

Ibid., e.g., 5: 190, 192.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방법 곧 진보적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의 바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은혜의 수단"에 의해 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외적 표현, 말, 행동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행, 칭의, 성결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보통 통로가 된다고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고 했다.

Ibid., 5: 189.

“수단”은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방법들이다. 너무 빈번히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증명”하고, 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웨슬레의 이해는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행하는 방법들은 실지로 우리 자신의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에 유의함을 강조함으로 단순한 순종이나 어떤 형태의 행위의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완전 명확하도록 웨슬레는 수단은 결코 한가지 죄도 속죄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을 받는가? 웨슬레는 분명하다: 수단에 유의함으로 받게 된다.

웨슬레가 어떤 활동들을 정한 세가지 범주가 있다.

- “일반적” 은혜의 수단이 있다.
- “제정된” 은혜의 수단이 있다.
- “신중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

이것은 웨슬레가 깊은 영적 유익을 갖고 있는 기독교 활동들을 분류한 방법이다. 일반적 은혜의 수단들은 계명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가 주의산만한 것들을 기꺼이 제쳐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웨슬레는 믿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본래의 경향성에 거스리는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웨슬레는 믿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하는 것은 하루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일반적 수단들의 각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이것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적 삶에 의미심장한 은혜를미쳤는가?

“제정된” 혹은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라 함은 웨슬레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참여하라고 지시한 수단들을 말한다. 이것은 기도, 성경 탐색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목상을 말하는 *Lectio Divina*의 개념과 비슷한), 주의 만찬, 금식,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의 회당을 의미한 “그리스도인의 회합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때 은혜는 그 회당에 참여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진다.

“신중한” 은혜의 수단들이 은혜안에서 성장하는 삶의 “지혜로운” 행위들로 인정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 클래스 모임-소그룹들-그곳에서는 책임이 강조된다.
- 몸을 목적있는 기도에 짓게 하는 기도회 모임들
-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할 필요를 강조하는 언약의 철야 예배들
- 사랑의 잔치들-지도자들과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세우기 위해 모이는 간증 타입의 예배
- 병든자를 방문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세기를 통해 일을 행함- 이것은 모든 초대 감리교도들의 삶에 중대했고 때로는 “금흙”의 행적”으로 불렸다.
- 경건의 고전집들을 읽음-웨슬레는 그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기를 통해 중대한 기독교 저술을 제공해 주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얻어진 지혜를 신중히 고려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중한 수단들에 추가될 수 있는 보다 현대적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반응을 허용하라.

은혜, 영적 형상. 그리고 성결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0-2 을 참조하라.

“‘영적 형상’이란 어구는 갈라디아서 4:19 에서 나오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썼다. 바울은 ‘morphoo’ (형상)— ‘metamorphoo’ (변형)— 과 밀접한 관련된 말 – 사용하는데 그것은 단지 회형이 아닌 본질적 성품을 말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내적 성품이 아닌 본질적 성품이 아주 그리스도와 같이 되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구주도 아닌 단지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행위를 가져야 했다”.

Wes Tracy, RIIE.

위로부터의 소명 에 대한 저자들은 영적 형상을 이 말들로 정의한다:

Wesley Tracy, E. Dee Freeborn, Janine Tartaglia, and Morris A. Weigelt. The Upward Call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94), 12.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단련된 삶의 스타일로 반영되고 우리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행동으로 입증된다”

더 나아가서 트레이시는 이렇게 진술한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인간의 마음과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권능은 어느면으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수세기를 거쳐 신자들은 어떤 단련, 경건의 시간을 갖는 숙련과 실행,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는데 거기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적 깊숙히 성결시키는 점진적인 역사의 계속적인 혁신은 “바로 그러한 영적 단련, 경건시간의 숙련, 그리고 변화시키는 성령에 마음의 문을 여는 실천들을 포함한다”.

구원하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나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중,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중이다. 성결의 이 측면은 기독교 신앙의 삶에 성숙해 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영성에 대해 가르치 한 분이 제의한 것 처럼 이 “수단에 유의”에 대한 이 이해는 단지 산다는 것은 보다 나은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 관한 것임을 주장하는 어떤 공상적인 관념을 거절한다.

진보적이라 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의도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반응과 협력을 강조한다. 일부 어떤 분들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방식대로 되어간다고 느끼게 하는 크리스찬 삶의 모델을 옹호해 왔다. 개인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은 중대하지만, 좋은 감정은 기독교 형성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지나친 주관론의 위험성이 있다.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의 착수에 협력하는 우리의 의지를 허용하는 모델을 제공해 왔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성결은 크리스찬 삶 가운데 중대하다; 그 진행 과정은 헌신의 주요한 순간들에 뒤 따르는 중대한 절차이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웨슬레의 이해는 인생 여정에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해짐을 목표 삼는다.

성결의 성찬식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0-3 을 참조하라.

*외적 표식과 내적 은혜*라는 그의 저서에서 로버트 스테이플은 웨슬레 교도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기독교 성찬식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상기시킨다. 이 중대한 작품에서 그는 주의 만찬은 성결의 성찬식-실지로 그러함을 의미함-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테이플의 한 문절을 충분히 인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웨슬레에게 순간적인 측면인 성결은 또한 “진보적 역사로서 추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귀의한 때로부터 느린 정도로 영혼속에 이루어진다” (작품 6:74). 그 성결의 역사를 더 진전시키는 한가지 중대한 수단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윌리엄] 윌리몬이 말한 것은 옳다: “주의 만찬은 ‘성결의 규제’로 하나님의 능력부여와 교제, 확증, 양육하는 은혜의 연속성과 필수성과 유용성의 표식이다. 우리의 삶속에서 그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행위의 도구들에 의해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고 성결된다.

Willimon, The Service of God: Christian Work and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125.

웨슬레/성결교회들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찬의 잠재력을 성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잘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바로 표준, 규범, 그리고 성찬의 의식적 성격이 그러한 이해를 반대한다. 특별히 성만찬에의 초대는 성결에의 부름으로 들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결은 크리스찬 삶이 우연한 방법으로 형성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평생동안의 주의, 습관,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성찬식의 표준과 향구성은 그것의 능력의 일부이다. 이 성찬 음식은 특별한 필요도 없고 기분을 돋우어 주게끔 의미있을 필요도 없다. (때때로 그것은 두가지 다 일지라도)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보통 음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지게 하는 음식물이다”.

세례는 성찬식의 시작인고로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지만 성결의 성찬식은 세례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듭해서 기념되어야 한다.

같은 책., 127.

“변함없는 성만찬의 의무”라는 웨슬레의 설교에서 그는 성찬식은 “변함없이” 기념되어야 한다는데 아주 강력하다. 그는 그것의 빈번도가 그것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염려하는 자들을 강력히 거스려 논쟁하였다. 이것은 그가 성찬식을 지극히 중대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것의 의미를 잃어 버릴까 두려워하여 덜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스태이플, 204-5.

웨슬레의 안목에 성찬식은 영혼이 특유하게 자양분을 받는 수단이다. 이것은 웨슬레가 성찬 요소들의 화체설을 믿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추억을 포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러함으로 그것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스테이플이 제시한 대로 그것은 마치 성결전통속에서 우리들 중 그들은 이것에 무관했던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19 세기에 전국의 부흥운동들과 캠프 모임들의 끝에 성찬식이 가끔 행해졌음이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다. 아마 이 성결 규정인들은 생각한 것 만큼 "성결의 성찬식"에 관한 웨슬레의 이해와 단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21 세기에 성결을 전파하는데 성찬식에 대해 새롭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진보적 성결의 중대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지도: 학생 반응

(10 분)

이 단원에 관해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이나 의견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단원의 교훈을 우리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제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웨슬레교의 모든 은혜의 수단을 판명할 수 있는가?
- 영적 단련, 은혜안에 성장, 진보적-점차적-성결, 그리고 영성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성결윤리”를 고찰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장정 문단 33-41 의 그리스도인 행위의 언약에 대해 읽고 검토해 본다. 두 페이지의 반응을 쓴다.

가장 좋아하는 웨슬레의 인용을 택하고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감명 깊었는지를 쓴다.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el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둡니다]

단원 11

체험: 성결 윤리

단원 개관

스케줄

시간표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0	체험 : 성결 윤리	강의 / 토론	자료 11-1 자료 11-2 자료 11-3
0:55	학생 반응	토론 지도	숙제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Dayton, Donald.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and Row, 1976.

Massey, James Earl. "[Race Relations and the American Holiness Movement](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1-1-02.ht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1 (Spring 1996). Nampa, ID: Wesley Center,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http://wesley.nnu.edu/wesleyan_theology/theojrn/31-35/31-1-02.htm

Powell, Sam, and Michael Lodahl. *Embodied Holiness: Toward a Corporate Theology of Spiritual Grow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Wynkoop, Mildred Bangs. *A Theology of Love*,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67, 165-183.

단원 서론

(10 분)

책임

몇명의 학생들을 불러 그들의
웨슬레 인용들을 .
읽도록 하라

학습자 목표들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과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들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개인의 성결과 사회의 성결,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연결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웨슬레의 말로 "감정"과 "기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과 같은 악용들을 판명하고 신학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스도인 행위의 언약과 성결신학을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원 본문

강의/토론 : 성결 윤리

(45 분)

웨슬레 성결신학의 임무

개인의 성결에 웨슬레가 끈질기게 초점을 둔 모든 측면은 그 개인을 그[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랑의 대항자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어떤 면으로든 이것은 자력으로 만든 성결이 아니었고 또 아니지만 은혜로 이루어진 “새 피조물”로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와 권능을 부여하는 성령의 임재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진정한 변화의 결과를 가져 왔다. 만일 그것이 실제적이고 계속된다면 내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웨슬레가 “공홀의 행동”이라 부르는 것으로 인도된다. 그는 아주 가끔 인용한 것 처럼 “사회의 성결외에 성결은 없다”.

세상에서의 특별한 성김의 행위들에 대한 유의깊은 권고가 웨슬레 때만 아니라 그 다음 세기 및 그 이후의 감리교 정신에 스며들었다. 학자들은 이제 20 세기 초기의 “사회 복음 운동” -자유 개신교와 연관된 운동-이라 알려진 것 훨씬 전에 감리교회와 연관된 운동-이라 알려진 것 훨씬 전에 감리교회와 특별히 19 세기 후기의 성결운동은 버림 받은 자에게 전도하고, 빈핍한 자를 돕고, 병든자에게 사역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억눌린 자를 변호하고 노예들과 여자들의 해방을 구했는데 모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이름으로 행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결의 이 사회적 차원은 웨슬레의 전통속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임무였다. 그 임무는 하나님이 내부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행되었고 또 이행되어 진다.

우리의 역사상 다른 때에는 성결이 아주 적극적으로 혹은 아주 상호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점들 가운데 성결은 도덕주의적 혹은 율법주의적 용어로 정의되었는데, 거기에 외적 표준의 썬트는 개인 성결의 정도였다. 이것은 규정된 도덕률을 개인 성결과 동등시하는 위험성을 갖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마음과 생활의 성결에 대한 웨슬레의 멧세지의 바로 핵심을 무시한 것이다.

See Randy Maddox, "Holiness of Heart and Life: Lessons from North American Methodism,"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1996): 151-72.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한 이 현 시대에 온건한 웨슬레교 윤리의 재생-나사렛 교회의 미래에 절대 필요하다. 거룩한 삶의 표준이나 행동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위한 내적 동기를 조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은 이 재성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

한 학자는 도덕률을 결국 오용하고 악용케 된 완전성결에 대한 19 세기의 성결 관점은 웨슬레가 그의 당대 영국의 경험론을 의존한 것과 성품과 미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를 그가 사용한 것을 무시하였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웨슬레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관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로 전유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성품과 미덕

웨슬레는 성품개발과 미덕의 삶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심히 은혜를 입었다. 약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이 여기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1-1 를 참조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실재에 있어서 네 “원인”이 있다고 믿었다: 물질적, 능률적, 형태적 그리고 궁극적 원인이다. “물질적 원인”은 왜 어떤 것은 그것이 하는 것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물체 그 자체의 경향성에서 발견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경향성이나 행동들 뿐만 아니라 본성의 결정적인 더 깊은 “원인”이 있다. 이것은 “형태적 원인”이다. 이것은 의자를 의자로 만들며 집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실재의 “궁극적 원인”은 그것의 목적 혹은 그것의 *telos* 를 결정한다. 실재 -사람-이 끌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 원인은 먼저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순수한 잠재력이다. 그것은 습관을 통해 실현된다. 그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었다. 행복이란 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미덕과 윤리적 미덕의 균형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행복이나 성취는 오로지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온다. 덕행을 통해 덕성의 실현을 습관들여야 할 뿐 아니라 *기꺼이* 미덕스럽게 되는데 필수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그는 잠재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이 긴장에서 나오는 네 타입의 성품을 상세히 설명한다.

- 첫째. “악한” 성품이 있다. 이 경우에서 사람은 그[녀]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가책도 없이 달리 행하기를 선택한다.
- “자제심이 없는” 성품은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택하지만 다음에 끝까지 행하지 못하고 결단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묘사한다.
- “자제하는” 성품은 이상에 더 가깝지만 동기 때문에 그것 미치지 못한다. 이 성품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하지만 오직 의무-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에서 한다.
- 참 “미덕”의 성품은 선을 알고 미덕 그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적 죄책감의 압력에서도 아니고 외적 형벌의 공포감의 압력이나 더우기 보상의 약속에서도 아니다. 미덕의 사람은 선을 위하여 선을 위한 내적 바람으로부터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일치하여 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미덕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많은 미덕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를테면 용기, 절제, 관대 그리고 진실이다. 하지만 단 한번의 용기의 행위는 그 사람을 용기있게 만들지 않는다. 참으로 용기있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용기있는 행위들이 그[녀]의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거나 실현될 때까지 그것들이 습관 들여져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른 용기있는 사람을 지켜 봄으로 용기를 배우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 혹은 지식-지적 미덕-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윤리적 미덕-과 균형을 이룬다.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관점을 “기독교화 한다”. 이것은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첫째로 잠재력을 갖는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해서이다. 우리가 어떤 펠라기우스 방법으로 선을 행하려고 시도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본성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선을 행한다. 분명히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인데 우리는 그것에 협력한다. 그것은 지식이나 습관적인 행동 그 이상이다.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성품을 허용하는 것은 내적 변화임이 사실이다. 웨슬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동사이에 깊은 상호 침투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웨슬레는 이 관계를 어떻게 명백히 말하는가? “기질”과 “애정”의 언어로 말한다.

이 말들은 오늘날 보통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보다 현대 말로 판명하도록 요청하라.

기질과 애정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1-2를 참조하라.

그의 시대의 영국 경험론자의 철학적 배경에 뿌리 내린 웨슬레는 선을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덕의 행위의 결과를 가져 온다는 개념을 거절했다. 이 대신 웨슬레는 이성만으로는 선의 동기를 불러 넣기에 불충분하다고 믿었다. 미덕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내적 변화는 소위 웨슬레가 “애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변화이다. 가장 간단히 말해서 “애정”은 의지와 감정을 한데 모으는 점이다. 애정은 모든 인간의 행동 아래 놓인 불가결한 동기 부여의 경향이다. 랜디 매독스가 진술하는 것처럼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표현으로 애정은 인간 삶의 합리적 및 감정적 차원을 특별한 선택 혹은 행동들에 대한 거룩한 경향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애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현실의 체험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고 점점 자란다”.

Maddox, “Holiness of Heart.”

이런 방법으로 웨슬레는 외적 세력 즉 은혜를 소개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제외한다. “웨슬레가 중대한 경우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애정이 일어나고 자라는 것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널리 뿌려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체험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들 그 이상의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협력함으로써 애정은 인내의 “기질”로 습관들여 질 수 있고 또 습관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행동들이 뒤따르는 이 선한 “기질”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서 개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주요한 기질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 다음 이 기질은 그것이 사랑의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때 실현되는 것이다. 같지 않으면 밀접히 관계되는 것은 성결의 기질이다.

이 점에 대해 이것을 우리의 성결 토론과 관련시켜 보기로 하자.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나아가고 초기 성결될 때 시작된다. 우리의 목적 혹은 참 거룩과 아가페 사랑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으로 회복된다. 이것은 각성으로서 그것에 우리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은혜안에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은 실현을 향한 긴 진행과정을 통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은혜는 우리의 애정애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을 거쳐 습관이 되고 은혜의 수단에 유의함으로 깊이 영향을 받는 애정은 우리의

행동이 유출되는 기질이 된다.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 곧 완전 성결은 이 기질들로 점점 더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한다.

Maddox.

그 다음 우리는 계속 이것들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는 완전성결을 통해 우리의 경향성들 – 우리의 “본성” – 이 변화되고 우리의 잠재력이 커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웨슬레는 또한 우리는 기질들을 거스려 행동하는 선택을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이 기질들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경향성들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행할 수도 혹은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역량이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경향성들을 정결 (완전 성결)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기질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주입시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미덕의 “씨앗”을 일깨운다. 그 다음에 이 씨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응답하며 성장함으로 튼튼해지고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 씨들은 우리의 행동들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가끔 웨슬레의 대요 곧 *마음과 삶의 성결을* 묘사할 때 이 두 어구들로 쌍을 이루게 한 이유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함으로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해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변화됨으로 우리는 삶속에서 정결함 받은 마음으로부터 외적 행동을 하게 된다. 성결은 그것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랑의 잠재력의 실현이다. 이것이 웨슬레가 이해한 구원론의 의미인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전체이다.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인데, 우리의 잠재력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고 또 그것들로 행동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의미에서이다.

극단을 피함

학생용교재에 있는 자료 11-3 을 참조하라.

우리가 성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적일 때, 그것은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면에만 치우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사이의 중대한 균형을 잃은 결과이다. 그러면 성결은 우리가 존재 방법보다는 우리의 행동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규정된 도덕 목록에 의해 정의된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면에 이 중대한 균형을 잃은 것은 도덕을 폐기론타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은혜는 “값 싼” 것이 된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도덕을 폐기론을 다루었다. 만일 죄가 은혜를 풍성하게 한다면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바울은 단호히 아니라고 한다!

만일 은혜를 받고 그것에 협력하면 은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로 우리의 행동들은 그 성품과 균일하게 될 것이다.

웨슬레는 "감리교도의 성품"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신 것에서 나오고 시간을 거쳐 우리가 성숙해 짐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본연의 우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행동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당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때문이다.

그런데 웨슬레 성결 윤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들 자신의 인간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다음의 것들을 통해서이다.

- 긍휼의 행동--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봄
- 사회부정을 바로 잡음 -인간 고통 저면에 깔린 압제의 구조를 다룸
- 복음 전도—하나님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전파함으로 절망속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줌

그러나 오늘날 불행히도 인기있는 복음주의 기독교는 가끔 그것의 깊이 자리잡은 개인주의, 그것의 도피주의적인 정신구조, 그것의 고립주의적인 경향성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의 증오에 대해 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웨슬레 성결 복음주의 교회로서 복음주의란 말을 되살려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을 관점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고 있다. "요한 웨슬레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삶에 옮겨진 "성결"과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된다—단지 우리의 "독특성" 만 아니고 우리의 "지향성"이 된다.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를 다음에 인도할 곳에 꼭 알맞는 이 지향성을 탐구할 것이다.

토론 지도: 학생 반응

(30 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게시판이나 오버헤드에 적으라

학생들에게 구체적이 되도록 도전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도우라

학생들로 표면적 수준 이상을
생각하도록 도전하라

속제물을 거두라.

여러분은 이 강의에서 배운 것을 나사렛 장정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언약"의 가치관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개인 및 사회성결과 그들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웨슬레의 말들 “애정”과 “기질”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과 같은 오용들을 판명하고 신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가?
- 그리스도인 행위의 언약과 성결신학을 관련시킬 수 있는가?

사전 예고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마찰을 마칠 것인데 21 세기를 위한 성결신학을 조사할 것이다.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린다.

여러분의 개요에 기초한 성결 설교의 완전한 최종 원고와 여러분의 그전 초안에 대한 동료 및 교사의 서평을 끝마치도록 하라.

여러분의 일지를 쓰라. 클래스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반영, 반응, 통찰력을 포함하라. 학과 과정 전체에 걸쳐

<http://www.ccel.org/w/wesely/journal/journal.htm>.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잡지를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임]

단원 12

21 세기를 위한 성결

단원 개관

시간표

시작 시간	과제 혹은 주제	학습 활동	필수 자료
0:00	서론	방향 지침	학생용 교재
0:15	21 세기를 위한 성결	강의/토론	자료 12-1
1:00	원래 질문들로 돌아감	토론 지도	단원 1 의 질문들
1:25	단원 결론	검토, 숙제 배당	학생용 교재

교사를 위해 제안된 도서

Shelton, R. Larry. "A Wesleyan/Holiness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3 (Fall 1998). (Not online as of February 2004; coming soon).

Strong, Douglas M. "Sanctified Eccentricity: Continuing Relev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Holiness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단원 본론

(15 분)

책임감

짜을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설교를 위도록 하라.

숙제물을 돌려주고 거둔다. 설교를 평가하여 돌려줄 준비를 한다.

학습자 목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하라.

학습자들을 위해 목표들을 다시 말하는 것은 본 단원을 위해 미리 체계화 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개념들을 일각시킨다.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 웨슬레 대한 19 세기의 논쟁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 현 시대에서 성결이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성결의 언어의 적응성들에 대한 제안들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단원 본문

강의 / 토론: 21 세기를 위한 성결

(45 분)

우리가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교단으로서의 우리 자신들이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 이 마출의 저자가 강력히 믿는 바인데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웨슬레나 성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맹목적으로 같은 언어와 은유들을 우리의 현재 배경속에 삼입하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분명 성결 역시 배경에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룩” 혹은 “성결”-웨슬레와 그의 후계자들이 충실히 전파했다고 믿는 것-로 알려진 것의 실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중대한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때때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신학의 독특성을 특별히 우리의 많은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재생시키고 선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 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글라스 스트롱의 말을 충분히 인용하고자 한다.

학생용 교재에 있는 자료 12-1 을 참조하라.

칼빈주의의 기독교 개혁이 초기 미국 종교내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는 초기 공화민의 지배적인 영성에 관련하여 신학 침해자로 여겨졌다. 흥미롭게도 이 칼빈주의의 비판은 20 세기 후반부 역사가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 났는데 자칭 정통 복음주의 수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역력히 보였는데 그들 중 거의 모두가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적으로 기울어진 침례교 전통들 출신이었고 그들은 웨슬레교를 신학적으로 위험스런 것으로 보았다.

이 새로운 복음주의 역사가들은 19 세기 미국 종교역사를 근본적으로 광신적 감정주의, 반 지성주의 그리고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19 세기가 일부 종교역사가들이 불렀듯이 “감리교 세기”였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이 정확히 19 세기의 문제였다고 믿는다.

비록 이 일반적인 20 세기 후기의 침례교회된 새 복음주의는 전혀 신학적으로 웨슬레 메시지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많은 성결교회들이 그것의 모두를 감싸는 우산 밑에서 동화되어 왔다.

Strong, "Sanctified Eccentricity: Continuing Relev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Holiness Paradig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35 (2000), 11-12.

예를 들어 성결교회들은 갑자기 발전하는 미국 새 복음주의의 번창에 기쁘게 참여하였다. 아이로닉하게 성결교회들은 오랫동안 문화적 적응에 저항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오늘날의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완전히 사상을 같이 해 왔다. 20 세기 후기의 성결교회들은 그들의 19 세기의 뿌리들을 잊어 버렸던 것 같다. 그들 중 많은 - 숫자적으로 번창했지만 그들의 짠 맛이 없는 - 교회가 주로 그들의 독특성을 잃었다. 이것은 아마 키이쓰 드러리가 성결운동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가 주목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죽은 것은 대중적 수준에서 그것은 그것 자체의 것 대신에 칼빈주의의 새 복음주의 관점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웨슬레의 최고 관심들 중 하나는 그의 감리교도들이 거룩한 사랑으로 빈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긍휼의 행동을 직접 의미하는 그들의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다. 19 세기 성결운동의 신학적 토대는 노예제도 폐지, 도시 선교사업, 심지어 여성인권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하였다.

피니스 브리스는 가난한 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가 의도적으로 그의 확신을 대표하도록 이름지은 교단을 창설하였다. 나사렛교회의 뿌리들은 정직히 말해서 웨슬레 성결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다; 완전성결 교리와 거룩한 사랑에 대한 소명은 원래 그것의 생명이 맥박이고 존재의 이유였다. 그러나 스트롱이 제의한 것 처럼 우리는 독특한 신학의 유업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독특한 신학의 유업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길을 잃어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다시금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대하다는 것을 제의한 것이다. 스트롱은 계속 말한다:

19 세기의 문제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낙관주의는 인간의 총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게 했다; 결단주의는 펠라기우스 교로 인도할 수 있었다. 체험의 즉시성은 감정적 열광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도덕적 열성은 율법주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괄적 교제는 파벌의 분리주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칭찬할만한 특색들을 추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쓸모있는 과거에 대한 나의 탐색에서 나는 우리를 위해 가치가 있는 19 세기 영성의 특징있는 표식 혹은 특색들을 식별하려고 힘 써 왔다. 단순히 특별한 교리적 강조보다는 오히려 성결한 남자와 여자들은 윤리성, 비전, 독특한 영성을 나타냈다.

Strong, "Sanctified Eccentricity," 19.

반응을 허용하라.

이 잠재적 문제들을 토의하라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사역/교회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가?

이것은 도전이다: 우리가 다음 세기에서 성결교리를 명확히 말하려고 시도하면서 윤리성, 비전 그리고 독특한 영성을 되찾고 재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 신학자나 한 설교가, 혹은 한 교사를 위한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길 기원한다.

이 인용들과 의견들에 비추어 현대상황을 위해 우리의 독특한 완전성결의 교리를 당신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가끔 "최 현대주의"라고 표현된 새 배경의 "상황"을 묘사하라.

상황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어휘에 변화가 필요한가?

웨슬레와 성결운동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고수해야 하는가?

토론 지도 : 원래 질문들로 돌아감

(25 분)

이제 학생들이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거나 그것들을 보다 깊은 수준에서 숙고할 수 있는지를 보라

단원 1 을 다루던 날 클래스에서 형성된 원래의 질문들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이 마줄/클래스에 대한 검토:

이 마줄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 왔는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역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설교 및/혹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과 당신의 성김에 영향을 줄 것인가?

결론짓는 어떤 의견이 있는가?

단원 결론

(5 분)

검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용 교재에 있는 목표들을 찾도록 지시한다.

이 단원을 위한 학습자의 목표들을 본다. 당신은

- 웨슬레에 대한 19 세기의 논쟁을 종합할 수 있는가?
- 현 시대에서 성결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 성결이 언어의 적응성들에 대한 제안들을 내 놓을 수 있는가?

숙제 배당

학생들의 주의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숙제물에 돌리라

마음과 삶의 성결을 실생활화 하라.

끝맺음

학생 각자를 위한 기도시간으로 끝낸다.